

# 濟州美術의 史的 展開에 관한 研究

解放後 繪畫를 中心으로

A Study on the Historic Development of CheJu Fine Art

With Main Stress on Drawings after Liberation

1985年 6月

朝鮮大學校 大學院

純粹美術學科

康 榮 浩

# 濟州美術의 史的 展開에 관한 研究

解放後 繪畫를 中心으로

指導教授 金 仁 煥

이 論文을 美術學 碩士學位 申請 論文으로 提出함

1985年 6月

朝鮮大學校 大學院

純粹美術學科

康 榮 浩

# 康榮浩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主審 朝鮮大學校 \_\_\_\_\_ 印

委員 朝鮮大學校 \_\_\_\_\_ 印

委員 朝鮮大學校 \_\_\_\_\_ 印

1985年 6月

朝鮮大學校 大學院

# 目 次

I. 序 論 .....	4
II. 濟州道の 自然環境과 歷史 .....	7
III. 濟州美術의 形成 背景 .....	11
VI. 濟州美術의 時代的 展開 .....	13
1. 光復과 濟州道 美術의 形成 (1945 ~ 1959 年) .....	13
2. 濟州美術의 再定立 및 學生 美術活動 (1960 年代) .....	16
3. Group 創立 및 濟州美術의 展開 (1970 年代) .....	21
4. 其 他 (書藝活動) .....	30
V. 結 論 .....	33
附 錄 .....	36
1. 濟州美術의 沿革 .....	36
2. 濟州道展 現況 .....	47
參 考 文 獻 .....	52

## ABSTRACT

### A Study on the Historic Development of CheJu Fine Art With Main Stress on Drawings After Liberation

by Kang Young Ho  
Advisor : Prof. Kim In-Hwan  
Dept. of Pure Art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Geopolitically, historically the Cheju cultures naturally have taken its characteristic local cultures being charged with special aspects contacting with various outside cultures.

In this circumstances Cheju Fine Art has played a great role to spread and form it directly or indirectly by banished famous artists from the main land.

Under the influence of Choo Sa's indirect effect, among artists studied in Japan, a few artists took a great to serve to the quickening period on Cheju Fine Art.

Kim In Ji, Cho Young Ho, Chang Hi Ok took the position of pioneers, but the growth of Cheju Fine Art was suspended by the April, 3rd outrage which broke out in Cheju Do.

Due to the influence of refugee artists who studied during the Korean War Cheju Fine Art became lively by them taken lessons in Seoul, in 1960's.

These coincided activities formed by post-war generations show-

ed their historical zeal, and their growth on art continued.

With Cheju Fine Art Association as the central figure Cheju Fine Art activities planted its roots slowly and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e for writers was established and formed its extensive basis in the various aspects.

In spite of organizing many art groups which many young artists participate in commercialism boom and art activities, they ignored the growth of art and didn't look forward the future, and confusion, hesitation and experimental aspects didn't contribute to develop our special native coloration as they are so rich in quantity and so degeneration in quality.

It is our immediate tasks to make our creative effects constantly for the local art as reviving the power of creation forward the future.

## I. 序 論

韓半島의 西南端에 위치한 濟州道는 1세기에 걸친 蒙古의 支配로 인해 中央文化의 영향에서 벗어나 孤立되어 오다 결국 朝鮮朝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中央文化圈域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 文化와의 접촉의 기회는 매우 드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濟州道는 朝鮮까지만 하더라도 잘 알려진 流配地였으며 6.25 등 變亂 時期에는 避難處이기도 하였다.

이같은 歷史的, 地理的 여건은 美術뿐만 아니라 각종 藝術, 나아가 모든 文化까지도 '濟州的인 特性'을 지니게 하는데에 直接, 間接 要因으로 作用했음을 看過할 수는 없는 일이다. '濟州文化'를 '流配文化' 또는 '避難文化'라 일컬어지고 있는 사실로도 이를 立證하고도 남는다.

秋史 金正喜先生이 大靜縣에 流配되어 오면서부터를 濟州美術의 淵源으로 잡는 데는 異見이 있을 수는 없다. 秋史의 濟州 流配는 濟州美術을 잉태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며, 나아가 그의 영향은 알게 모르게 우리 島民들에게도 미쳐 급기야는 濟州에서도 日帝時代에 이미 日本에 유학한 美術學徒들 곧 金光秋, 邊時志, 梁寅玉, 朴泰俊, 趙英豪, 張喜玉 諸氏들이 출현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美術이 아닌 다른 分野로 進出하였기 때문에 濟州美術界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말았다.

解放부터 50년대까지 濟州道 美術界는 歷史가 없었다고 해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1955년에야 비로소 「濟州道美術協會」가 結成되었으며, 설령 美協이 結成으로 濟州美術界에 어느 정도 活力素의 역할을 했다고 보지만 濟州美術界의 胎動期는 이외로 길었고 침체상태에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60年代 초반에 濟州道 画壇은 文基善, 姜泰碩, 梁昌普, 金澤和 등이 陸地部에서 美術수업을 마치고 돌아와 왕성한 作品活動으로 活氣를 되찾은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濟州美術의 씨앗을 뿌리는 결과가 되었다. 이들의 영향으로 60년대는 가장 學生美術活動이 活潑했던 시기에 해당된다. 1962년에 創立된 「靑同人」에서 美術活動을 펼 학생들

은 오늘날까지 作品活動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때 「靑同人」의 美術活動도 오늘의 濟州美術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가 있다.

1972년 濟州大學에 美術教育科가 새로 생기어 文基善(彫刻, 應美), 梁昌普(東洋畫) 金澤和(西洋畫)가 담당하면서 美術教育에 대한 새로운 摸索과 轉換의 方向을 設定하게 되었다. 專門的 作家 養成機關인 濟大美術教育科는 濟州美術의 發展을 豫見해 볼 수 있는 精神的 支柱가 되고도 남았다.

現在 濟州에는 50여명의 作家들이 作品活動을 하고 있으며, 「濟州道美協」을 중심으로 活動하는 한편, 「靑點同人」, 「面脈同人」 등을 비롯한 많은 Group들이 왕성한 作品活動을 계속하고 있기도 하다.

濟州는 美術의 不毛地라 불리우는 곳으로 비록 짧은 景運을 가진 濟州美術이지만 이 기간중에는 社會 變化와 함께 많은 變貌를 가져 왔고, 또한 많은 美術學徒들이 배출됨에 따라 크고 작은 여러가지 問題點이 야기되고 있어 筆者로서는 이 方面의 研究가 절실히 必要하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濟州美術에 대한 歷史的, 組織的 研究가 안되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며, 또 심지어는 濟州美術이 本土美術에 接木된 美術로 看做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그 眞僞를 알아보려는 시도가 本研究의 目的이다.

研究對象의 範圍는 繪畫, 書藝만을 중심으로 한정하고 解放後부터 70년대까지의 濟州道面壇의 特色을 살피고자 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 濟州面壇에 영향을 준 作家들의 作品活動이 主가 될 수밖에 없으며, 彫刻과 應用美術分野 活動은 꼭 미미한 실정으로 아직도 胎動期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本研究對象에서는 제외시켰다.

研究方法으로는 斷片的인 文獻과 新聞, 雜誌 그리고 각종 팜프렛을 통한 자료 수집과 이를 토대로 하여 直接 作家와 면담을 통하여 사실을 確認하는 방법을 택했다.

本研究는 濟州道の 自然環境과 歷史를 알아보고 난 뒤, 濟州美術의 形成 背景과 그 時代的 展開를 年代別로 區分, 그 기간에 活動한 作家別, Group別, 樣式的 特性을 考察하는 順序로 進行된다.

그러나 濟州美術에 관한 先行研究가 없는 상황에서, 그것도 新聞, 雜誌, 팜프렛과 口

傳 등에 의존하다 보니 筆者의 主觀的 解釋·判斷에 쏠렸다는 점, 生存한 作家와 活動  
中인 Group을 그 對象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끔은 어렵고 곤란한 문제점도 없지 않았  
는 점을 미리 밝혀 둔다.

## Ⅱ. 濟州道の 自然環境과 歷史

濟州는 東經 126度 30分 北緯 33度 30分에 위치해 있고 韓半島의 西南部 木浦로부터 남쪽으로 91마일, 부산에서 168마일 떨어져 있는 絶海上의 孤島인데, 이런 4면이 바다인 섬으로서의 地理的 條件이 先史時代부터 오늘날까지의 歷史時代를 통하여 濟州(이하 本道라 稱한다)의 歷史를 繼承發展시키고 決定지었으리라 생각된다. 어떻든 漢拏山을 중심으로 해서 北方的인 要素와 南方的인 要素가 옛보임은 古來로부터의 交通手段으로 大陸的인 要素는 韓半島 南半部를 거쳐 本道로 流入되면서 南方的인 要素를 이루었을 것으로 推定된다.

日本과의 距離도 韓半島 보다는 近距離에 위치하고 있어 日本文化가 流入되었을 可能性도 示唆해 주고 있다. 北方的인 要素와 南方的인 要素가 있음은 端的으로 말해서 地理的 條件에 의한 것으로, 漢拏山을 中心으로 이루어진 文化圈의 形成은 先史文化의 性格을 左右하고 있다.<sup>1)</sup>

地理的 條件과 더불어 本道 歷史上에 決定的인 役割을 한 것은 또한 氣象的 條件이다. 本道の 氣候는 漢拏山을 중심으로 해서 南北으로 약간의 差異가 있으나 近海에는 暖流과 몬순의 영향으로 溫和한 海洋性 氣候를 이루고 있다. 濟州道는 예로부터 三麗의 섬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풍광으로 하여 독특한 文化를 꽃피우기에 알맞은 고장이며, 또한 絶海의 孤島이면서도 長久한 歷史의 자취를 찾을 수 있기에 그 文化의 固有性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漁勞의 발달은 자연히 交通手段의 發達을 보게 되어 隣近 各地와 交流가 이루어졌을 것이다.<sup>2)</sup>

歷史적으로 볼 때 濟州道는 耽羅國이었다. 金錫翼이 지은 「耽羅紀年」의 原文을 要約하여 살펴보면, “耽羅는 나라 이름이며 本來 九夷의 하나이다. 禹貢楊州의 東쪽 渤海 가운데 있으니 幅圓은 五百餘里나 되며, 오늘의 朝鮮 全羅道 濟州島가 곧 그 곳이다.

---

註: 1) 濟州道誌(上), 「第2節 自然環境과 文化流入」, 濟州道, 1982, pp.9 ~ 10.

2) 濟州道誌(上), 「第2節 自然環境과 文化流入」, 濟州道, 1982, p.10

濟州島는 먼 옛날에 島夷라 불렸다. 史記에 의하면 禹王이 九州를 정함에 있어 그 職務로 貢物을 바쳤는데 荒服에 이르렀다. 한다. 北으로는 山戎 發息愼과 동으로는 長島夷 등이 帝舜의 功을 높이 받들었다.

尙書(五經의 하나인 書經)에 보면 揚州의 島夷는 卉服을 하였다. 한다. 括地志는 이르기를 百濟 西南 渤海中에 大島가 15個所나 있어 모두 邑落을 이루고 있고, 사람이 살아 百濟에 屬한다. 하였으니 이는 모두 楊州 동쪽의 島夷다. 史記正義에 동남의 夷는 草服을 한다 하였고 草服은 葛越蕉竹之屬이고 越은 苧屬이다.

濟州島를 東瀛洲라고도 하였다. 司馬遷의 史記에 보면 瀛洲는 渤海中에 있다 하였다.” 이 밖에 濟州島를 州胡國<sup>3)</sup>, 涉羅<sup>4)</sup>, 僮羅<sup>5)</sup>, 耽浮羅<sup>6)</sup>, 毛羅<sup>7)</sup>로도 불렸다.

耽羅國의 成立은 時代의 變遷과 社會의 發展에 隨伴하여 外勢도 점차 強勢를 보이게 되고 이에 따라 各氏族 集團은 보다 크고 강한 外勢에 對항하기 위하여 三姓氏族(高·梁·夫)이 聯合하여 보다 큰 集團, 즉 三姓氏族의 大集團體인 部族社會를 形成하는 과정이 나타난 것이다. 다시 말해서 氏族中心의 部落 自治社會가 점차 原始社會로 成立하게 된 것이다.<sup>8)</sup>

三國時代에는 三國과 耽羅와 關係를 맺고 있음도 알 수 있다. 百濟는 地理的으로 가장 近接하고 私的, 公的으로 交涉이 먼저 이루어졌다.<sup>9)</sup>

三國史記 記錄에 의하면 百濟 25代 武寧王初인 13년경 西紀 500년대에 百濟에 所屬되므로 인해 高句麗와의 關係는 中斷됐고 또 新羅와의 關係는 百濟가 滅亡한 西紀 600년 이후에 公的인 交涉이 始作됨을 알 수 있다. 또한 新羅는 日本과 唐과의 關係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註: 3) 濟州道誌(上), 「濟州島의 古代名稱에 대한 考察」, 濟州道, 1982, pp.44 ~ 44.

4) 上 揭 書

5) 上 揭 書

6) 上 揭 書

7) 上 揭 書

8) 濟州道誌(上), 「耽羅國의 成立과 新羅朝入朝」, 濟州道, 1982, p.46.

9) 濟州道誌(上), 「三國史記 百濟本紀 文武王二年(476년)條에는 “耽羅國 獻方物 王喜拜使者 爲恩率”이란 記錄이 보여 史實을 뒷받침 한다.」, 濟州道, 1982, p.47

日本과의 관계는 三國時代 이전부터 사적인 교역이 盛行했던 것으로 믿어지지만 공적 交涉으로 百濟가 羅唐聯合軍에 의하여 항복하던 文武王 元年인 西紀 660년부터 시작된다.

「日本書記 齊明天皇 七年(661年) 夏五月條」

「日本書記 特統天皇 二年(688年) 條」

「職員令集解의 古記의 別記條」

위의 여러 記錄으로 볼 때 당시 耽羅와 日本間에는 政治, 經濟, 藝術의 交流가 큰 비중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耽羅人들은 音樂과 舞踊이 뛰어나 그 영향이 日本社會까지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0)</sup>

耽羅人은 航海術, 造船術이 능하여 中國 沿岸에까지 진출 通商貿易을 하였다. 耽羅는 百濟(東城王 20年), 新羅(文武王 元年(660年)), 高麗 太祖 21年(938年)에 歸屬되어오다 元宗 11年(1270年) 9월부터 恭愍王 16年(1367年) 元에 의해 지배되었다. 그 후에도 牧胡의 勢力은 여전히 남아 橫暴를 부렸는데 그들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恭愍王 23年, 약 1백여년 동안 濟州에 扶植되었다.<sup>11)</sup>

李朝時代에는 太宗 16年(1416年)에 濟州牧, 旌義縣(表善面 城邑里), 大靜縣(모슬포)으로 鼎立되었으며 李朝 500年을 내려오는 사이에 地方的으로 성격이 크게 형성되었다.<sup>12)</sup> 近世朝鮮 500年을 통하여 濟州島는 代表的인 流配의 섬이 되어왔지만 哲宗이 즉위한 이후 高宗, 純宗에 이르는 약 60년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流配인들을 받아들인 時期였다. 이 기간 중에 약 60여명에 달하는 國事犯들이 謫居했으며, 그들 가운데는 一世를 풍미하던 歷史的 人物들이 많았으므로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등 各分野

---

註:10) 濟州道誌(上), 「耽羅國의 對外 關係」, 濟州道, 1982, pp.48 ~ 50.

11) 濟州道誌(上), 「三別抄의 入據와 亂의 影響」, 濟州道, 1982, p.79.

12) 濟州道誌(上), 「李氏朝鮮의 建國과 濟州」, 濟州道, 1982, p.108

에 미친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었다.<sup>13)</sup>

日帝時代를 거쳐 解放을 맞고 46 년에야 全羅道에서 분리 濟州道로 昇格이 되었다.<sup>14)</sup> 濟州道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全羅道 行政區域에 속하면서 濟州島로 奇生하여 濟州의 文化創達은 어느 곳보다도 늦어지는 요인이 되었다. 民謠, 巫俗 등 生活의 哀歡이 깃든 民俗的 文化를 갖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

註：13) 濟州道誌(上), 「流刑人들과 影響」, 濟州道, 1982, p.364.

14) 濟州道誌(上), 「道制昇格 通告文」, 濟州道, 1982, p.443.

### Ⅲ. 濟州美術의 形成 背景

濟州道는 地理的으로 陸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絶海孤島일 뿐만 아니라 歷史的으로 百濟나 新羅와 다소의 접촉이 있었으니 獨自的으로 諸文化를 流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高麗 때에도 中央集權下의 歸屬은 되었지만 一世紀에 걸친 蒙古의 지배로 中央文化圈域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으나 그 文化와 접할 수 있는 기회란 매우 적었다고 하겠다.

한편 지정학적 위치와 歷史的 조건으로 보아 北方的 要素와 南方的 要素의 文化와 日本 등의 文化가 流入 混用된 複合文化의 성격도 띠게 되었다. 따라서 濟州의 文化는 貴族的 高級文化와는 달리 原初的이고 島民的 기반 위에 濟州道 風土의 生活에 알맞게 토착화된, 陸地와는 다른 특유한 民俗文化를 형성하고 있다.

濟州美術의 根源은 李朝 憲宗 6年(1840년) 秋史 金正喜가 濟州道에 유배되었을 때부터라 할 수 있다.<sup>15)</sup> 그는 大靜縣을 謫居地로 삼고 9년여 동안 유배생활을 하면서 이 고장 젊은이들에게 天文, 地理, 算數 등 實事求是의 學問을 가르쳐 近代思想을 심어 주었고, 뿐만 아니라 특히 濟州의 寒蘭과 水仙花에 深醉해 있었으며 많은 그림과 書藝作品을 후세에 남겼다.

당시 이곳 선비들에게 글과 書面를 가르쳤는데 이 때부터 이 고장 美術의 歷史가 싹트기 시작했다고 표현을 해도 무리는 아닐 성싶다. 당시 弟子로서 사랑을 받던 小痴 許維(鍊)(1809~1892)도 秋史에게 書面를 배우러 진도에서 바다 건너 濟州 大靜縣에 憲宗 7년 2월~同6월에 配所 訪問, 憲宗 9년 7월~同10년 春 出陸 憲宗 13년에 3차 방문을 하였고<sup>16)</sup> 수차례에 걸친 書禮을 왕래하며 濟州 선비들과도 친숙했던 사실은 이곳 美術界의 또 하나의 胎動의 과정이라 말할 수 있겠다. 유배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찾아 주는 弟子들의 好意에 감사의 뜻을 높이 기려 松栢에 비유하여 남긴 「歲寒圖」는

註: 15) 崔完秀, 「金秋史研究艸」, 서울 知識產業社, 1976, p.119.

16) 上 揭 書 p.118.

金泳鎬, 「小癡實錄」, 서울 瑞文堂, 1976, p.46

우리 나라 美術界뿐만 아니라 世紀의 傑作으로 길이 전하고 있다.

秋史 金正喜에게 가르침을 받은 弟子들은 타지방 젊은이들 못지 않게 뛰어났으나 단명한 것이 슬픈 歷史이며, 특히 秋史體를 體得한 濟州의 金九五, 大靜의 姜道揮, 郭支의 朴秀詹<sup>17)</sup>은 秋史의 사랑을 받았는데 아끼는 弟子 朴秀詹이 죽자 遺族에게 行서계련으로 써 준 병풍은 지금도 전해오고 있다. 아뭏든 지금으로부터 145년전 秋史가 濟州大靜縣에 유배되면서 뿌린 學問과 藝術꽃은 오늘날까지도 이 地方文化藝術人들에게 遺訓으로써 길이 남아 후세에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

日帝時代에는 金光秋, 邊時志, 梁寅玉, 朴泰俊, 趙英豪, 張喜玉 등이 日本에 유학을 통해 美術을 수학함으로써 濟州人에 의한 본격적인 濟州美術의 맥락을 잇기 시작했다.<sup>18)</sup> 해방 이후 西洋畫에 金仁志를 중심으로 趙英豪, 高成珍, 玄丞北, 金寶潤, 金昌海 등이, 東洋畫에는 張喜玉 등이 活動한다.

西洋畫를 專攻한 金光秋, 朴泰俊은 그 후 書藝面에서 많은 活動을 하고 있다. 그러나 日本에 유학한 邊時志, 梁寅玉은 서울 호남 지역에서 活動함으로써 濟州에는 직접적 연관을 갖지 못한 까닭에 이 時期를 胎動期로 부를 만하다. 그러나 이들의 活動에도 불구하고 解放이 되어도 美術活動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 4.3으로 인하여 더욱 그러했다.

1950년 6.25 동란을 契機로 李仲燮, 張利錫, 金昌烈, 崔榮林, 洪鍾鳴, 崔權休, 李大源 등이 入道하여 作品 活動을 시작함으로써 濟州美術界는 다시 活氣를 띠기 시작했다. 이들의 滯道期間은 불과 1,2년이었지만 그 영향으로 中等學校 美術教育이 활발해지고 美術을 專攻하는 學生의 數도 불어나 저변이 擴大돼 나갔다. 그러니까 解放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濟州美術은 6.25 동란을 계기로 陸地部에서 흘러들어와 뿌리를 내린 바탕 위에 비로소 1955년 5월에 濟州道美術協會가 結成됨으로써 濟州의 美術이 形成을 보게 됐다 하겠다.

註: 17) 金錫翼, 「耽羅紀年」, 濟州道教育委員會(耽羅文獻集), 1976, p.82  
增補耽羅誌, 「淡水契編」, 프린트관, 1954.

18) 濟州道誌(下), 「第3章 藝術」, 濟州道, 1982, p.463.

## Ⅳ. 濟州美術의 時代的 展開

### 1. 光復과 濟州道 美術의 形成(1945~1959년)

1945년 8월 15일, 이 날은 우리 民族史에 있어서 큰 轉換點이었으며 希望과 비전을 한꺼번에 안겨 준 感激의 頂點이었다. 그러나 濟州에는 48년 4.3事件으로 말미암아 激動과 混亂 속에 光復 후 근근히 싹트기 시작한 濟州美術을 송두리째 原點으로 돌려 놓고 말았다.

다만 他地方에서 온 朴魯史가 46년 5월에 처음으로 油面展을, 47년 李錫柱가 濟州 農業學校에 美術教師로 在職時 油面展을, 47년에 姜瑢澤이 濟州 農業中學校 2年 在學時 ‘新教育展’에서 臨時政府 文教部長官賞을 受賞했고, 48년 4월에 朴泰俊이 油面展을 갖는 등 濟州美術界가 활력이 넘치는 듯하더니 4.3事件으로 인해 중단되는 事態가 벌어졌다. 또한 50년대에는 金一根, 趙英豪, 高成珍, 張喜玉 등이 中等學校에서 美術教師로서 후배 양성을 하기 始作하면서 직접, 간접으로 濟州美術이 다시 새로운 活氣를 찾기 시작했다.

1950년 6.25로 말미암아 51년부터 54년까지는 皮난이라는 民族의 一大 試鍊期였기 때문에 濟州에도 많은 皮난민들이 들어왔으며, 그중에는 李仲燮, 張利錫, 崔榮林, 洪鍾鳴, 崔德休, 李大源, 金昌烈, 具大一, 玉巴一 등 画家들이 入道하여 作品 活動을 始作함으로써 活氣를 펴기 시작했다.<sup>19)</sup> 金昌烈은 濟州市에서 警察官으로, 崔德休는 訓練所 政訓隊長으로, 張利錫은 秋史 謫居地인 大靜에서 生活을 했고<sup>20)</sup> 李仲燮은 西歸浦에서 1년 가까이 西歸浦 바닷가의 계와 해변에서 뛰노는 兒童들을 그렸다. 그는 文島를 背景으로 한 西歸浦 全景과 森島를 背景으로 한 田園面, 漢拏山을 背景으로 한 風景, 영거귀 作品, 계와 까마귀와 파이프를 主題로 한 作品을 그렸고, 흔치 않은 朴正龍氏의 肖像面, 고마운 船主를 위해 여섯 폭의 병풍 그림을 제작하였다.<sup>21)</sup>

註: 19) 濟州道誌(下), 「第3章 藝術」, 濟州道, 1982, p.463.

20) 季刊美術, 「地方畫壇의 巡禮」, 서울 中央日報社, 1980, p.131.

21) 李仲燮 書翰集, 서울 韓國文學社, 1980, p.198

「純粹의 西歸浦 時代」에 그는 事物의 客體를 正攻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 자신과 事物 사이에 어떤 意識의 挾雜物도 끼지 않은 印象의 純度를 경험할 수 있는 일이 그는 太陽, 바다, 橘, 어린 아이들, 濟州牧牛, 풀밭, 나무들 그리고 생선들을 先天的인 親和力의 潛在로부터 實在化시켜 30點이라는 作品을 남겼다. 또한 大型壁畫의 꿈을 濟州에서 企圖했다.<sup>22)</sup>

또한 洪鍾鳴은 五賢中學校에서 교편을 잡아 濟州의 美術을 專攻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줬다. 그의 영향을 받아 姜泰碩, 金澤和는 그림을 시작하는 契機가 됐고, 또한 具大一, 玉巴一, 李大源 등도 韓國保育院에서 교편을 잡아 高永萬, 高在萬 형제에게 그들의 영향을 줬다.<sup>23)</sup>

6.25 이후 50년대 초기에 避難畫家들이 끼친 영향은 秋史의 영향이 日帝時代에 와서 日本 留學을 불렀듯, 60년대 초에 와서 서울 遊學으로의 길을 텃다. 이처럼 流配와 피난으로 유명한 畫家들은 濟州의 畫壇 生成에 직·간접적으로 큰 몫을 한 事實을 간과할 수는 없다.

1953년에 「學生美術展」이 11월 20일 濟州美國公報院 主催로 개최되었다. 總應募 作品數는 학생이 136點, 贊助出品 12點으로 出品種目도 油畫, 크레파스畫, 水彩畫, 크레용畫, 鉛筆畫의 5種目으로 濟州에선 처음 있는 큰 行事였다.

1954년 11월 25일에 학생들의 예술에 대한 理解를 진전시키고, 그 意慾을 고취시키기 위한 어떤 綜合的인 祭典을 期待하는 당시 학생들과 社會의 熱望에 부응하기 위해 五賢高等學校 主催로 「全道學生綜合藝術祭」가 개최되었다. 五賢學園 構內와 觀德亭, 濟州劇場 등지에서 이루어진 이 藝術祭는 觀람 인원 總 86,300명, 27개교가 참가하여 盛況을 이루었다.<sup>24)</sup>

1955년에는 「濟州道美術協會」가 地域社會 藝術 發展의 一翼을 擔當하고 美術人들의 創作意慾을 북돋우고 親睦과 團合을 目的으로 創立되었다. 당시 美協 構成員은 濟州市

---

註: 22) 高 銀, 「그 藝術과 生涯 李仲燮」, 서울 民音社, 1973, pp.139 ~ 140.

23) 季刊美術, 「地方畫壇巡禮」, 서울 中央日報社, 1980. p.132.

24) 賢岳 2號, 五賢高等學校 學徒護國團, 1954.

長과 KBS濟州放送局長을 지낸 바 있으며 鮮展(1935년)에 入選한 바 있는 金仁志를 중심으로 洪貞杓, 洪完杓, 張喜玉, 趙英豪, 朴泰俊, 林性中이었고 또한 顧問으로 吉聖運, 金仁洪, 辛相默, 金仁培 諸氏였다.<sup>25)</sup> 1955년 5월 20일부터 市内 觀德亭 中央卓球場에서 濟州道警察局廳舍 落成 祝賀 兼 「第1回 濟州道美術協會展」이 創立 후 처음으로 열렸다. 出品作家는 金仁志, 洪貞杓, 洪完杓, 張喜玉, 趙英豪, 朴泰俊, 金一根, 具大一, 高成珍, 玄中和 등이다.

1955년 10월에는 濟州市制 慶祝「美術展」이 濟州道美術協會 主催로 觀德亭에서 개최되었다. 1956년 7월에는 「學徒美術展」이 濟州道美術協會 主催로 繪畫, 書藝, 手藝, 寫眞 등의 5種目으로 公募展을 개최하여 濟州 黎明期 美術 活動의 빛을 발하게 됐다.

休戰이 成立되고 동란의 참화를 수습할 단계에 접어들 무렵인 1956년 10월 23일 晨星女子中學校 講堂에서 「文總濟州支部」가 結成을 보게 되었다. 도내 40여명의 文化藝術同好人들이 參席하여 「文化人 전체의 權益 擁護와 民族統一의 課業完遂를 위한 反共文化戰線을 형성하고 民族文化 發展에 寄與한다」는 趣旨 아래 文總濟州道支部가 結成되었고 11월 12일에는 中央文總의 認准을 얻어 正式 發足を 보게 됐다.<sup>26)</sup> 濟州道美術協會에서는 西洋畫, 東洋畫, 應用美術, 彫刻, 書藝, 美術理論, 寫眞, 建築의 分科도 細分하여 각각 分科委員을 두기로 했다. 美術分科委員은 東洋畫에 洪貞杓, 西洋畫 趙英豪, 工藝 洪完杓, 應用美術 朴泰俊, 彫刻 李采鳳, 書藝 玄中和, 美術理論 金瑛洙, 寫眞 朴魯政, 建築 康奇汀으로 第1回 濟州文化祭에 參加했다.

第2回 濟州文化祭에는 57년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道一圓에서 開催했는데 濟州道美術協會 代表委員은 玄中和, 分科委員은 東洋畫에 金基範, 西洋畫에 趙英豪, 工藝 金一根, 書藝 玄中和, 手藝 金瑞玉이다. 濟州文化祭는 1956년 第1회를 시작으로 58년 3회를 끝으로 여러가지 사정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3회에 걸친 濟州文化祭는 濟州道文化藝術人의 손으로 이루어졌고 이 地方 文化藝術人들의 共同의 目標을 향해 함께 일

---

註 : 25) 濟州新聞, 濟州新聞社, 1955.2.26.

26) 濟州文化, 文總濟州支部, 1957.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으며, 특히 文化藝術 活動의 기반을 닦는데 寄與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sup>27)</sup>

또한 西歸浦에서는 1958년 봄에 結成된 「文總西歸浦支部(支部長 康昌鶴)」는 그 해 6월 8일부터 3일간 西歸浦에서 南濟州郡藝術祭를 열었다. 이 行事は 西歸浦地域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藝術祭여서 住民의 호응이 컸는데 3회까지 文總의 主催로 열려 山南地方의 藝術文化에 대한 일반 주민의 관심을 깨우칠 수 있었다.<sup>28)</sup>

1958년에 金原(弘益大 教授)은 農林部와 公報室로부터 濟州道の 國立牧場과 濟州道 名勝地 및 農村 風景을 중심으로 한 그림을 要請받고 그린 12점을 갖고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觀德亭에서 個人展을 열었다. 이 展示會는 직·간접적으로 濟州美術人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는 청량제 역할을 했다.<sup>29)</sup>

이 외에도 個人展을 연 作家들은 1954년 趙英豪 個人展, 1955년 姜泰碩 個人展, 具大一 PASTEL 画展, 金壽鎬 洋画展, 金南培 個人展, 1957년 金昌海 水彩画展 등이 있었고 그 외에는 大靜高 美展(56년), 表善中 美展(55년), 晨星女高 美展(55년), 濟州女中高 美展(56년), 高永萬 金澤和 二人展(57년) 등이다.

유배와 피난으로 유명한 画家들은 직접, 간접으로 濟州美術에 移植, 형성에 큰 몫을 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濟州美術은 일면 開拓, 일면 整理라는 두 問題를 동시에 解決해야 할 歷史的 轉換點에 서 있는 것이다.

## 2. 濟州美術의 再定立 및 學生 美術活動(1960년대)

60년대의 濟州画壇은 旺盛한 학생 美術 活動이 이루어졌다. 할 수 있다. 60년대 초에 濟州道画壇은 陸地部에서 수학하고 돌아온 新人들의 參與로 濟州美術의 萌芽를 심는 作業이 시작되었다. 이 무렵 定規코스를 밟은 사람들로서 60년 초 文基善(61년 서울大 學校卒業), 梁昌普(62년 서울大 學校卒業), 姜泰碩(서울大 學校 62년 中退), 金澤和

註: 27) 濟州道誌(下), 「第1節 文化團體 組織活動」, 濟州道, 1982, p.445.

28) 濟州教育史, 「第2章 學事活動의 發展」, 濟州道教育委員會, 1979, p.506.

29) 濟州新聞, 濟州新聞社, 1958.8.14.

(弘益大學校 64 年中退), 金元玟(弘益大學校 62 年中退) 등으로써 서울에서 美術 수업을 마치거나 중단하고 돌아와 活動을 했다.

또한 60 年 後半에 姜光(65 年 서울大學校卒業), 左蓮善(68 年 弘益大學校 卒業), 曹碩春(68 年 中央藝術大學校 卒業), 高英羽(弘益大學校 68 年 中退), 康榮浩(67 年 弘益大學校 卒業) 이들은 직접 中·高校에서 學生들을 指導하였다는 점에서 美術人들의 活動과 학생 活動은 깊은 相關關係를 갖는다. 또한 60 년대에는 大學 在學生들이 國展에 出品하기도 했다. 西洋面部에서 姜泰碩은 10 회에 入選, 金澤和는 11 回 特選, 12 回 入選, 康榮浩는 15 回 入選을 했고, 東洋面部에선 梁昌普가 10 回 入選, 曹碩春은 14 回 15 回 入選을 하였다.<sup>30)</sup> 그러나 이들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大學을 中斷하거나 卒業 直後 歸鄉함으로써 國展과의 關係는 더 이상 持屬되지를 못했다.

잠시 中斷됐던 濟州道美術協會가 60 年 8 月 9 日 KBS 濟州放送局 局長室에서 再結束이 이루어져, 會長에 金仁志, 副會長에 洪貞杓, 洪完杓, 幹事に 金昌海를 選出하고 沈滯狀態에 놓여 있는 協會 活動과 會員 相互間의 親睦을 極大化하는 의미에서 協會展을 春·秋에 갖자는 결의를 다짐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努力을 하였다.<sup>31)</sup>

62 年 처음으로 全國美術實技大會에 參加를 하게 된다. 高在萬(五高 3 年), 康榮浩(五高 3 年)가 弘益大 主催 美術實技大會에 參加를 시작으로 많은 학생들이 參加하여 좋은 成績을 올리기도 했다. 65 년에는 金瑛哲(五高)이 弘益大學院長賞을, 68 년에 高榮勳(五高)이 理事長賞을, 69 년에는 金鍾錫(五高)이 弘益大學長賞을 受賞함으로써 濟州 학생 美術의 실력을 中央에 誇示하였다. 이 외에도 開天藝術祭, 朝鮮大實技大會, 首道師大實技大會 등 濟州 中·高 학생들이 많은 入賞을 하였다.<sup>32)</sup> 그 후 이들은 弘大, 中央大(당시 서라벌藝大) 등에서 画家授業을 쌓았고 현재 대다수 作家로써 活動을 하고 있다.

1962 年 五賢高等學校 美術部가 주축이 되어 각 中·高 學生 美術部 間의 親睦 交流 목적으로 濟州에서는 처음으로 학생씨클인 「꽃同人」이 創立되었다. 主動的 發起人으로

註: 30) 國展 30 年史. 修文書館, 1981.

31) 濟州新聞, 濟州新聞社, 1960.8.10.

32) 濟州教育史, 「第 3 章 學事活動의 發展」, 濟州道教育委員會, 1979, p.524.

는 高在萬, 曹碩春, 高英羽, 左蓮善, 조정순, 박승기, 고권식, 康榮浩 등이며 후에 姜東植, 邊德富, 金柄化 등이 參加했다. 初代 會長은 康榮浩가 맡았으며 會員은 20 여명에 達했다. 「굴同人」은 中等學校 美術運動으로 당시 많은 수를 차지한 학생美術人口였으며, 그 水準도 높았다. 이들의 指導는 姜泰碩, 金元玟이 推대되었으며 參加學校는 五賢中·高, 晨星女中·高, 濟州中·商高, 濟州農高, 濟州師範, 第一中·高等學校 등 학생들이 參加한 汎濟州學生美術團體 「굴同人」은 그 후 70 년까지 이어졌다. 이 시기에 活潑했던 學生美術은 현재 濟州美術을 튼튼하게 하는 기반도 되었다.

壬寅年 決算에서 濟州新聞紙上을 통해 文基善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學生 活動狀況을 보면 比較的 發展하였다고 본다. 그 이유로는 兒童畫의 固定化 現狀과 既成의 編見의 方法인 萬習에서 解放되어 愛護와 育成策을 모색하는 氣運이 있고 「프리미리즘」에의 새로운 着眼하였다 본다. 이것이 美的 表現의 본바탕이 되는 純粹한 感情과 자유로운 形態, 表現에 回歸한다는 사실과 中·高等 학생의 美術씨클로써 「橘展」을 마련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뒤늦게나마 學生美術運動이 開花하고 있다는 實情을 안다면 應援感을 禁치 못할 것이다.”

1960 년 濟州道美術協會 主催로 「全道中·高美術展」이 11 월 10 일부터 16 일까지 美國文化院에서 열린 이 公募展에는 東·西洋畫 100 여점이 展示됐다. 이 美術展示에는 학생들의 水準向上을 엿볼 수 있고 종전에 비해 東洋的 特色이 보이는 大作들이 出品한 것이 特色으로 볼 수 있다.

62 년 8 월에 任直淳(朝大教授) 洋面展이 뉴욕양과점에서 열렸다. 中央面壇의 中진 作品을 대하는 기회가 됐고 展示中에 任教授와 記者와는 만남에서 “國民生活과 美術과의 距離를 좁혀야 한다”고 말하여 일상과 너무나 隔離된 最近의 作品 傾向을 걱정하기도 했었다.<sup>33)</sup>

特記할 만한 것은 62 년에 曹碩春(濟農高 2 年) 이 학생으로서 처음으로 東洋面 個人

---

註 : 33) 濟州新聞, 「任教授 洋畫展에 붙쳐」, 濟州新聞社, 1962.8.4.

展을, 63년에는 梁永珍(五高2年)이 洋面 個人展을 열었다는 사실이다.

3회까지 계속되었던 濟州文化祭는 政治的 激動과 社會的 混亂, 그리고 文總支部의 운영상 문제점 등 여러가지 분계점으로 인해 中斷狀態에 놓인 시점에서 5.16 革命이 일어났다. 5.16 이후 濟州道에는 藝總支部가 創立이 됐고, 이 시기에 中斷狀態에 놓였던 美協(支部長 玄丞北)도 다시 結束 活動을 시작했다.

5.16 記念行事를 計劃하기에 이르러 濟州道公報室과 藝總支部가 主催 第1回 濟州藝術祭를 開催하기에 이르자 濟州道美術協會에서도 美術實技大會와 5.16 記念「濟州道美術協會展」을 濟州道公報室 主催로 5월 16일 부터 25일까지 濟州美國公報院에서 열렸다. 出品 作家로는 姜瑢澤, 姜泰碩, 金寶潤, 金澤和, 金元玟, 文基善, 玄丞北 등이다. 65년 4회부터는 漢拏文化祭로 改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sup>34)</sup> 이 文化祭를 통하여 많은 美術人들이 배출되어 濟州美術의 뿌리를 내렸다 하겠다.

65년 8월 19일에는 晨星女高 講堂에서 濟州에선 처음으로 濟州를 위한 中央의 美術家를 招待하여 濟州道와 濟州新聞社가 主催하여 「天然美感의 再發見」이란 主題를 갖고 講演會와 韓國美術品 紹介(스라이드를 상영), 全道民에게 美術을 認識시키는 契機를 마련하였다. 講演會 演題 및 講師를 보면 「韓國美術의 表現愛」(崔淳雨), 「画家가 본 濟州島」(卞鍾夏), 「画家와 自然」(전성우), 「韓國의 現代美術」(李龜烈)이다.<sup>35)</sup>

이 시기에 梁寅玉(木浦大教授) 個人展이 要安茶室에서 열렸다. 木浦와 光州에서 活動하고 있는 氏의 展示會가 故鄉 濟州에서 선보임으로 그 동안의 그의 作品을 대할 기회가 마련되었고 濟州에서 活動하고 있는 美術人들에게 자극제가 됐다. 이 외에 個人展을 연 作家는 1961년에 韓明燮 個人展, 金元玟 洋面展, 62년에는 추당 東洋面展, 郭龍培 洋面展, 63년에는 小松 金正鉉 東洋面 小品展, 金澤和 個人展, 康榮浩 個人展, 姜泰碩

---

註 : 34) 濟州道誌(下), 「濟州藝術祭」, 濟州道, 1982, p.446.

漢拏文化祭프로그램(第4回); 開催趣旨文은 李致根(文協)이 지은것으로, 다음 해부터는 「漢拏文化祭로 改稱하여…」를 「漢拏文化祭로 稱하여…」로만 고쳐 이 趣旨文은 그대로 사용해오다가 9회 때부터 內容 一部를 고쳐 사용해오고 있다.

35) 濟州新聞, 「濟州를 위한 美術家 招待」, 濟州新聞社, 1965.8.16.

스케치展, 64년에 康榮浩 個人展, 65년에 梁昌普 東洋画 個人展, 金昌海 水彩画展, 姜泰碩 小品展, 66년에 金澤和 個人展, 朴喆數 水彩画展, 張喜玉 東洋画 個人展, 淑堂 裴貞禮 東洋画展, 67년에 金元玟「繪画와 詩画」의 빈당省展, 68년에는 朴忠檢 東洋画展, 梁昌普 東洋画 個人展, 康榮浩 油画 小品展 등이다. 學生 活動으로써 「晨星美展」 「賢展」, 「濟商美展」, 「國際親善美術展」, 「第一中·高美展」, 「中央女中·高의 「造花와 版画展」 등이 展示會가 있었다.

64년에는 濟州道에 이 고장의 美術의 前衛로써 資質을 키우고자 實技, 理論을 병행한 專門 美術人을 養成하는 美術研究所가 생기기 시작했다. 「姜泰碩 個人美術研究所 (64아프리에:)」 「湖岩美術研究所」, 「“영” 美術研究所(康榮浩)」가 그것이다. 여기를 거쳐간 많은 학생들이 濟州道美術의 중추적 역할을 擔當하고 있다. 이만큼 美術研究所의 出現은 濟州美術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하겠다.

68년에 濟州道文化 中興을 다짐하며, 그 꿈에 부풀은 創造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이 고장 文化界에 커다란 派紋을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다. 1월 13일부터 원茶房과 백록茶房에서 열리고 있는 吳芝山 東洋画 個人展에서 일이다. 이 展示會를 돌아본 濟州道 美術協會 會員들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최대의 羞恥心을 느낀다”고 憤激, 이에 濟州新聞紙上을 통해 반박하기에 이른다.

「藝術의 本質은 創造를 통하여 또 하나의 의미를 發見하는 데 있고, 藝術은 어디까지나 實際的인 態度와는 다른 藝術的 態度를 基本으로 하는 創作 作用이어야 함에도」<sup>36)</sup>

‘吳芝山の 個人展’은 藝術品이 商品的 價値로 賣買를 目的으로 한 展示會라는 데서 커다란 논란의 불씨가 된 것이다.<sup>37)</sup>

60年代는 「收穫의 해」라 할 수 있다. 本道 出身 梁寅玉(木浦大 教授)이 85년 國展(14回) 西洋画에서 國務總理賞과 66년 國展(15回)에서 文敎部長官賞을 受賞함으로

註: 36) 李慶成, 「現代韓國美術의 狀況」, 서울 一志社, 1976, p.89.

37) 濟州新聞, 「商魂질은 美術展」, (엉망인 표구 닮은 그림에 다른 題目 붙인 정도) 一美協, 吳芝山 개인전에 非難一, 濟州新聞社, 1968.1.24.

씨<sup>38)</sup> 濟州面壇에 큰 자극제가 되기도 했다. 또한 本道 出身으로 日本에서 活動하고있는 作家로는 西洋画에 宋英玉(北郡朝天 出身, 自由美術協會員)과 李景朝(西歸出身, 神戶大學教授)가 있고 釜山에서 活動하고 있는 東洋画家로 朴忠檢(北郡 金寧出身, 釜山女大教授)이 있다.

### 3. Group 創立 및 濟州美術의 展開(1970년대)

70년대는 濟州美術이 劃期的인 發展을 가져온 時期라 볼 수 있다. 72년 12월 31일 濟州大學에 美術教育科가 新設되면서 美術人口의 저변 擴大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초대 美術教育科長으로 文基善, 2代 梁昌普, 3代 禹載國, 4代 梁昌普, 5代 夫賢一, 6代 邊時志(現在)로 이어 오고 있다.

濟大美術教育科는 濟州美術의 展開에 있어 美術文化의 主導的인 産室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濟大美術教育科에서 東洋画의 理論과 實技를 지도하기 이전에는 거의 不毛地라 할만큼 極小數(梁昌普, 姜瑢澤, 曹碩春 등)에 불과하였던 것이 濟大美術教育科의 新設 이후 質的, 量的으로 成熟하게 됐다.

74년에 梁昌普(濟大教授)가 濟大美術教育科에서 지도하면서부터 그의 영향을 받아 많은 作家가 배출되었다. 康東彥(濟大教授), 金哲敏, 玄美姪, 姜玟宣, 金姝利, 金惠淑, 崔溫子 등 대부분이 中等學校 教師로 活動하고 있다.

77년에는 서울에서 活動하다 온 禹載國(78년 死亡)이, 79년에는 夫賢一이, 釜山에서 活動하다 濟大美術教育科에서 지도하면서부터 濟州의 東洋画는 成熟된 뿌리를 내리게 된다.

73년에 「濟大美展」이 처음 열려 專門養成機關으로서의 역할을 담당, 현재까지 해마다 定期的으로 展示를 해오고 있다. 74년에는 「第5回 大學美展」에 처음으로 參加함으로써 中央과 地方大學의 隔差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됐고, 濟州出身 金昌夏(中央藝術大學 4年在學)가 西洋画部에서 國務總理賞을 受賞하기도 했다.

---

註: 38) 國展 30年史, 修文書館, 1981.

第5回부터 10회까지의 東洋画, 西洋画 入賞者는 다음과 같다.

1974년 第5回 東洋画 特選 康東彦

西洋画 入選 朴榮珍

1975년 第6回 東洋画 銀賞 趙蓮淑

特選 金哲敏, 文永洙

獎勵賞 康東彦, 金孝順

入選 2명

西洋画 獎勵賞 白光益

入選 3명

1976년 第7回 東洋画 特選 康東彦, 趙蓮淑, 金孝順

獎勵賞 康東彦, 文永淑, 金映希

入選 6명

西洋画 獎勵賞 高永錫

入選 6명

1977년 第9回 東洋画 特選 姜玟宣, 金熙淑

獎勵賞 金姝利, 金贊浩, 金順禮

入選 10명

西洋画 特選 鄭光燮

獎勵賞 高永錫, 高永子

入選 9명

1978년 第9回 東洋画 銀賞 金熙淑

特選 高基昊, 朴順子, 金靜兒, 李泰承

獎勵賞 李庚美, 金惠淑

入選 8명

西洋画 銀賞 鄭光燮

西洋画 特選 梁碩姬

獎勵賞 金容煥, 金良姬

入選 11명

1979년 第10回 東洋画 銀賞 黃明姬

特選 張 駉 金映希 全在現

獎勵賞 沈慧眞 金玉珍 吳正善 金熙淑 玄美妊

入選 8명

西洋画 特選 金庸柱

獎勵賞 김계홍

入選 5명

또한 77년부터 「濟大教授 作品展」이 열려 격년제로 展示해 오고 있다.

第1회와 第2회 教授展에 出品한 教授는 다음과 같다.

第1회 : 東洋画 : 梁昌普 禹載國

西洋画 : 邊時志 姜吉源 金澤和 康榮浩

彫 刻 : 文基善

第2회 : 東洋画 : 梁昌普 夫賢一

西洋画 : 邊時志 姜吉源 金澤和 康榮浩

彫 刻 : 文基善

應 美 : 許敏子<sup>39)</sup>

75년에 濟州新聞 創刊 30周年을 맞아 “濟州美術의 中興을 기하고 나아가서 民族文化의 發展에 寄與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趣旨로 「濟州道展」이 개최되었다. 一般部 (東洋画, 西洋画, 書藝)와 學生部(繪画, 書藝)로 나누어 개최하여 濟州道民에게 한 해

---

註 : 39) 濟大教授展팜프렛 (1977 ~ 1979)

동안의 濟州美術의 결산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회이고, 학생과 同好人들에게는 自身の 作業을 總整理하는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展示會의 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79년 까지 5회의 「濟州道展」에서 最高賞은 다음과 같다.

1回 金妍實, 2回 金柄化, 3回 高永錫, 4回 鄭光燮, 5回 梁碩姬

78년 「濟州道展」에 聽灘賞이 制定되어 東洋面部에 施賞해 오고 있다.<sup>40)</sup>

67년부터는 사실상 濟州道美術協會가 여러가지 이유에서 休眠狀態에 놓이게 된다. 겨우 「漢拏文化祭」에 몇몇이 作品을 선보일 정도로 그 脈을 이어 왔을 뿐이다.

1971년에 姜瑢澤, 梁昌普, 曹碩春(東洋画), 姜光, 金元玟, 金澤和, 康榮浩(西洋画) 7인이 모여 「画室同人」을 創立하게 된다. 이들 7인은 각기 다른 職場과 画脈을 構築하고 있어 한데 모이기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純粹한 藝術의 廣場으로 사심없이 뭉쳐 同年 10월 20일 부터 시내 소리茶房에서 「画室同人展」을 갖게 된다. 이들은 매달 새로운 作品을 展示하기로 하고 새롭고도 慎重한 試圖를 보인다. 「画室同人」은 73년까지 계속되다가 美協이 정상적으로 活動하게 됨에 따라 자연 解體된다. 또한 이 同人은 濟州道美術協會 核心멤버로써 濟州道美術協會가 再結束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sup>41)</sup>

第9回 漢拏文化祭(70년 10월) 부터 濟州道美術協會의 正常的인 운영으로 美協展 및 實技大會를 개최하여 濟州美術의 擴大基盤을 構築하였다.

76년에는 日本에서의 作家 修業으로 「光風會」最高賞을 受賞한 바 있는 邊時志, 77년에는 「國展招待作家」인 姜吉源이 濟大美術教育科에 부임함으로써 더욱 濟州面壇에 活力素가 됐다.<sup>42)</sup>

76년 6월 「美協 16人展」을 계기로 美協展을 봄, 가을 두 차례 定期的으로 열어 현재까지 계속해 오고 있다. 美協의 歷代 會長職을 맡아온 이들은 初代 金仁志, 2代 玄中和, 3代 玄丞北, 4代 金寶潤, 5代 文基善, 6代 康榮浩, 7代 文基善, 8代 梁昌普,

註: 40) 濟州教育史, 「第3章 學事活動의 發展」, 濟州教育委員會, 1979, p.515.

41) 濟州新聞, 「에꼴드 파리 연상계, 핵심멤버 7인그룹」, 濟州新聞社, 1971.10.21

42) 季刊美術, 「地方畫壇巡禮」, 서울 中央日報社, 1980, p.133.

9代 金澤和(現在)이며 梁昌普 會長 때부터 正式으로 韓國美術協會에 登錄되어 「韓國美術協會濟州道支部」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濟州道美術協會 會員은 대부분 美術教師로써 60년 부터 79년까지 會員은 다음과 같다.

60년 前半期(62年 ~ 65年)

東洋画: 張喜玉 梁昌普 文基善

西洋画: 玄丞北 金寶潤 姜瑢澤 金昌海 姜泰碩 金澤和 金元玟

60年 後半期(66年 ~ 69年)

東洋画: 梁昌普 姜瑢澤 曹碩春 高良子

西洋画: 姜泰碩 金澤和 金元玟 姜光 康榮浩

70年 前半期(70年 ~ 75年)

東洋画: 姜瑢澤 梁昌普 曹碩春

西洋画: 姜光 金景珠 金柄化 金宗昊 金元玟 金澤和 朴性垠 부영애

李志鴻 金盛植 趙太侑 千炳權 韓國仁 康榮浩

70年 後半期(76年 ~ 79年)

東洋画: 姜瑢澤 梁昌普 禹載國 夫賢一 曹碩春 康東彥 崔溫子 姜玟宣

西洋画: 邊時志 姜吉源 金澤和 金元玟 姜光 金圭洙 高永萬 金宗昊

金盛植 高英羽 李正平 金柄化 高在萬 金安貞 韓國仁 高永錫

韓明燮 李成滿 金妍實 康榮浩

70년에 「南道東洋画綜合展」이 市内 산호茶房에서 열려 東洋画의 뿌리인 호남面壇의 作品을 보는 계기가 됐고 濟州面壇에 刺戟을 준 展示가 됐다. 出品 作家는 文章浩, 朴益俊, 李鍾元, 李昌柱, 林景洙, 朴항환, 吳禹善, 李英雨, 李達才이다.<sup>43)</sup> 8월에는 任直淳(朝鮮大教授), 晋良旭(朝鮮大教授) 「二人小品展」이 열려 韓國面壇과 호남面壇의 眞髓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sup>44)</sup>

註: 43) 濟州新聞, 「南道 東洋畫 綜合展」, 濟州新聞社, 1970.11.17.

44) 濟州新聞, 「盛夏 油畫展에의 招待」, 濟州新聞社, 1979.8.10.

또한 梁昌普, 金澤和, 金元玟「三人스케치展」이 10월에 열려 濟州面壇에 活力素가 됐고 75년에는 曹碩春, 康榮浩「繪画二人展」이, 74년에는 姜光, 高英羽「二人展」이 열려 旺盛한 作品 活動을 보여 주었다. 이들「二人展」은 具象系列의 중심이 된 本道의 美術에 非具象이란 새 바람을 불어 넣어 아직까지 침체를 못벗는(또는 벗어나려고도 않는) 本道 美術界의 反作用처럼 보이는 이들의 作業에서 「장난氣와 狂氣의 世界」의 원초적인 이유를 드러내 새로운 이즘을 맞을 채비를 하게 된 動機가 됐다고 본다. 이 이전에 이미 姜泰碩, 金元玟의 作品에서 造成되는 兆朕이 보였지만 그 脈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지 못했던 것이다.

「姜光 小品展」, 「高英羽 크레파스展」, 「康榮浩 作品展」에서 抽象화가 濟州面壇에 移植되어지는 단계에 이르게 됨에 따라 점차 새로운 그룹 活動이 創立을 보게 되는 契機가 됐다. 77년에 姜光을 중심으로 2·30代 젊은層 作家들이 抽象系列의 그룹을 創立하게 된다. 「觀點同人」이 그것이다. 創立會員은 姜光, 姜堯培, 吳奭燾, 高永錫, 白光益, 金容煥, 鄭光燮 7명으로 構成되어 創立을 본 「觀點同人」은 그 作品 發表를 創立展(6월 20일 ~ 7월 5일), 2回展(7월 6일 ~ 15일), 3回展(7월 16일 ~ 30일)으로 나누어 갖기로 결의하여 旺盛한 作品 活動을 현재까지 계속함으로써 濟州美術에 새로운 章을 열었다 하겠다.

또한 刮目할 만한 그룹으로 78년에 創立을 본 「画脈同人」이었다. 金元玟, 高英羽, 高在萬, 康榮浩 4인으로 構成된 이들은 60년도에 最初의 학생그룹인 「楸同人」중 현재까지 画筆을 잡고 있는 會員들로 再構成하여 새롭게 創立을 하게 된다. 후에 金柄화가 參加하여 현재까지 活動을 하고 있다.

또한 75년에 濟州大學校美術教育科 在學生들로 구성이 된 「鹿友會」가 있다. 이들은 東洋面 具象, 西洋面 抽象, 彫塑 등 각기 個性的인 作品을 모아 76년 시내 大호展示場에서 創立을 보지만 卒業과 동시에 解散되고 만다. 會員은 康東彦, 金柄化, 金淳官, 朴榮珍, 白光益, 吳奭燾, 李世鐵, 李榮珍, 洪權杓 등이다.

이 외에 78년에 濟州大學美術教育科 同門들의 모임으로 會長 高在萬이 중심이 된

「濟大同門展」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고, 20 代의 젊은이들로 構成된 「돌맹이會」 등이 있다. 70년대는 많은 그룹이 創立되어 濟州面壇에 폭넓은 活動을 보게 된다.

또한 77년에 姜光(五賢高教師)이 26回 國展에서 特選을 하여 活潑한 活動을 보여줬다.

71년, 78년에 濟州에선 처음으로 그림을 즐겨 그려온 純粹한 아마추어들로 構成이 된 「濟州日曜画家會」가 “배운 것이 있다면 繪畫의 世界가 참으로 깊고 넓어서 미칠 수 없는 것이라는 한 가지 두려움뿐”이라는 辯明과 함께 誕生을 보게 된다. 前者는 會長 崔玄植을 중심으로 17명으로 構成이 됐고, 後者는 會長 崔雄吉을 중심으로 10명의 會員이 모여 각각 1~2回的 會員展을 갖고 解散하고 만다. 이들의 結成은 곧 “美術을 사랑하는 마음은 곧 生活의 길”이라는 生活人的 취미 活動뿐만 아니라 美術人口의 底邊擴大라는 次元에서 큰 收穫이라 하겠다.

特記 할 만한 展示會로는 75년의 「姜泰碩 個人展」<sup>45)</sup>, 76년의 「故姜泰碩 遺作展」<sup>46)</sup>이다. 가난과 싸워온 「不屈의 画家 姜泰碩의 作品展」은 그림과는 無關한. 친구들에 의해 마련돼 主人公 없이 37점을 시내 靜茶房에서 展示함으로 한 個人的 藝術 作業을 돕는 새로운 風土가 濟州에서도 일어났기 때문이고, 또한 「遺作展」은 弟子들의 個人 所藏品과 遺品에서 나온 45점의 作品을 갖고 精誠으로 展示會를 마련 그의 業績을 기리고자 했기 때문이다.

姜泰碩은 61년에 濟州女高에서 교편을 잡았었고, 64년에는 시내에 아프리에를 열어 後輩養成에 힘썼던 그는 67년 故鄉을 떠나면서 「藝術의 彷徨」을 시작했고 73년 11월 서울 韓國面廊에서 個人展을 가져 特有한 画風이 中央面壇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藝術의 境地와 反比例하여 그의 건강과 生活 때문에 79년 39세의 짧은 나이로 他界했다.

梁昌普(濟大教授)는 그의 作品을 “幻像과 苦痛의 무게를 동시에 느끼게 하는 이들 作

---

註：45) 濟州新聞, 「가난과 싸워온 不屈의 畫家」, 濟州新聞社, 1975.6.14.

46) 濟州新聞, 「집념과 고뇌의 흔적들」, 濟州新聞社, 1976.5.15.

品은 그동안 姜氏가 그림 때문에 살아 있다는 것을 實感한다. 그는 무서운 画家이다” 라 한 바 있다.

初期作은 “ 침착하고 병적인 우울을 담고 있는 「샤갈風」의 幻像에 한동안 사로잡힌 듯한 것과 末期에는 記號化에 대한 實驗에 집착하는 여러 차례의 變身된 作品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가 生存時에 남긴 2백여점의 作品은 濟州道美術에 있어 重要的 資産으로 남아 있다.

78년 5월에 美協의 活性化를 기하고 또한 美協基金 造成을 위한 「美術作品展」을 시내 觀德路 산호茶房에서 열었다. 道内에는 展示를 위한 展示空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자신들의 힘으로 機能的인 文化團體가 될 것을 스스로 다짐함은 물론, 이러한 決意와 覺悟로 이 展示會를 가짐으로써 많은 支持와 呼應을 얻게 됐다.

70년대 個人展을 가진 作家들은 다음과 같다.

1970년 金澤和 個人展

梁昌普 韓國画展

崔仁煥 小品展

1971年 金英子 油画展

金正炫 東洋画展

姜瑢澤 東洋画展

金澤和 油画個人展

曹碩春 東洋画展

1972年 高秉允 油画個人展

許 薰 東洋画展

李六錄 油画展

金柄化 個人展

- 1972年 姜東文 洋画展  
梁昌普 東洋画個人展  
金永太 油画個人展
- 1973年 姜 光 習作展  
朴貞和 小品展  
趙太侑 油画展
- 1974年 張喜玉 東洋画展  
姜 光 小品展  
湖岩 梁昌普 韓國画展
- 1975年 趙太侑 油画個人展  
金智姬 美術作品展
- 1976年 高永萬 油画展  
高英羽 크레 파스 画展  
李炳三 作品展  
高榮勳 作品展  
康榮浩 作品展
- 1977年 金英子 油画展
- 1978年 朴性垠 作品展  
金淳官 作品展  
湖岩 梁昌普 作品展  
姜吉源 油画展  
徐良順 油画展  
金澤和 風景画展  
邊時志 作品展  
康榮浩 作品展

1979年 姜 光 繪画展

金柄化 作品展

李龍子 個人展

金泰伸 画展

曹碩春 個人展

在日 画家인 金泰伸 個人展에서 日本画法의 特有한 밝고 強烈한 色彩 表現과 簡明하고 裝飾的인 單線의 多感함이 調和된 画風으로 日本画壇의 眞髓를 볼 수 있게 됐다.<sup>47)</sup>

또한 禹載國(濟大教授)는 서울 堅志画廊에서 78년에 東洋画 個人展을, 邊時志(濟大教授)는 79년에 서울 同德美術館에서 個人展을 갖고 姜吉源(濟大教授)은 79년 全南 全日美術館에서 作品展을 가졌다.

앞으로 濟州美術 活動도 全國舞臺로 擴散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또한 國際企劃展, 渡美展, 渡佛展, 渡日展 등을 計劃하고 있어 80년도 濟州의 美術 活動이 展望은 밝다 하겠다.

#### 4. 其 他(書藝活動)

濟州書藝의 傳統은 오래다. <耽羅誌>에도 10人의 名筆이 올라 있을 뿐만 아니라 秋史 金正喜(1840~49年)의 長期 本道 流配는 그 門下에 朴癸詹, 金九五, 姜道渾 3人의 書道家를 輩出시켰고 研農 洪鍾時도 「秋史淵源書法入神」이라는 讚辭를 받을 만큼 그 筆劃이 一世에 뛰어났다고 한다.<sup>48)</sup> 이러한 傳統은 그대로 이어져 素奄 玄中和, 聽灘 金光秋, 晚農 洪貞杓, 海丁 朴泰俊, 清溪 金性澤 등이 解放 이후 계속 書藝 活動을 해왔으며, 이들의 영향과 지도로 書藝人口가 늘고 있다.

56년 가을 당시 濟州師範學校에서 교편을 잡던 素奄 玄中和의 지도로 濟州師範 학생들의 「書藝展」이 觀德亭에서 열렸는데, 그 후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 때

---

註: 47) 濟州新聞, 「在日畫家 金泰伸 畫展」, 濟州新聞社, 1979.5.18.

48) 濟州道誌(下), 「第3章 藝術」, 濟州道, 1982, p.465.

學生이던 이들이 지금 敎壇에서 學生書藝 지도에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sup>49)</sup>

淸溪 金性澤은 토요일마다 濟州北國民學校에서 直接 一般과 학생들에게 한글 書體를 가르쳐 한글 書藝에서 이미 一家를 이루었다. 또한 71년에는 그의 門下生들의 모임인 「藝墨會」가 會員 40 여명으로 構成되어 創立한 이래 계속 展示를 해오고 있다.<sup>50)</sup> 淸溪 이후 高奎燾, 玄炳燦, 朴澄銓 등이 한글書藝를 계속해오고 있다.

65년 6월에는 濟州道 「瀛州研墨會」 發起를 위하여 洪貞杓, 金光秋, 玄中和, 金性澤, 康昌洙에게 通文하고 白鹿茶室에서 發起總會를 개최하여 創立準備委員으로 洪貞杓, 金光秋, 玄中和, 文基善을 천거하고 會則 草案 作業을 하여 7월 25일에 晨星女高 講堂에서 「瀛州研墨會」가 創立이 되었다. 初代 會長에 洪貞杓, 副會長에 玄中和, 總務에 文基善, 會員으로 金光秋, 金性澤, 金泰俊, 金玟奎, 李範九, 康昌洙, 宋元和, 邊榮卓, 金鐸林, 金奉玉, 金升協, 玄義久, 金成春, 金時顯, 金瑄玉, 梁重海, 金順謙, 金奉洙, 姜柄龍, 玄炳燦, 姜昌浩, 玄玟植<sup>51)</sup> 등이 65년 11월 第1回 會員展을 가진 후 지금까지 정기적인 會員展을 갖고 있으며 書道講座를 개최하고 漢拏文化祭 行事에서는 競書大會를 主管하는 등 濟州道 最初의 書藝그룹으로써 書藝 普及을 위해 힘쓰고 있다.

71년에는 初等敎員 중심으로(會長 高奎燾) 組織된, 「濟州書藝敎育硏究會」는 학생 지도의 核心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정기적인 會員展을 갖고, 또한 競書大會를 主管하는 등 活潑한 活動으로 國民學校 書藝敎育의 質的인 向上을 圖謀하고 있다.<sup>52)</sup>

73년 5월에는 李成斗, 李濟民, 宋根守, 張龍職, 文基善 등을 중심으로 「素墨會」가 組織된다. 初代 會長 李成斗를 中心으로 許淵旭, 玄桂浩, 左惠晶, 高景賢, 朴東圭, 白玉子, 丁哲子, 李旻澤, 李榮珍, 左宗喆 등이 74년 3월 第1回 會員展 이후 계속 갖고 있으며 素奄 玄中和의 지도로 研書를 하고 있는데 會員은 50여명이 되고 있다.<sup>53)</sup>

---

註: 49) 濟州敎育史, 「第2篇 現代의 濟州敎育」, 濟州敎育委員會, 1979, p.525.

50) 濟州敎育史, 「第2篇 現代의 濟州敎育」, 濟州敎育委員會, 1979, p.524.

51) 瀛州研墨會 沿革 참조

52) 濟州敎育史, 「第2篇 現代의 濟州敎育」, 濟州道敎育委員會, 1979, p.524.

53) 素墨會 沿革 참조

79년, 西歸浦에서 처음으로 「西歸浦書画同好人」이 創立되어 정기적으로 展示會를 갖고 있다. 會長에 玄玟植, 會員으로 邊榮卓, 康雲玉, 安興燦, 김보순, 玄守彦, 강경찬, 오동수, 김태생, 金銀京 등이 參加하여 活動을 하고 있다.<sup>54)</sup> 또한 中央에서 活動하고 있는 海丁 朴泰俊은 66년 中央日報 主權의 全國書藝展에서 最高賞인 大統領賞을 受賞한 바 있다.<sup>55)</sup>

素奄 玄中和는 國展 招待作家 및 審査委員으로, 海丁 朴泰俊은 推薦作家로, 邊榮卓은 國展 17回, 18回 入選을 하여<sup>56)</sup> 濟州書藝에 밝은 展望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書藝活動은 그동안 書藝人口의 底邊 擴大에 많은 寄與를 했음도 길이 記錄될 것이다.

60년대 이후 많은 作家들이 活動을 보인다. 個人 書藝展을 가진 作家들은 67년 南龍 金容九 書道展, 68년 金順謙 書藝展, 69년 素奄 玄中和 招待書藝展, 72년 雲根 文基善 水墨展, 73년 覺庵 鄭宰賢 書藝作品展, 孫榮珠 書藝展, 74년 雲耕 南廷九 篆刻展, 77년 南松 洪完杓 書藝展, 孫翎日 書道展, 78년 徐京保 禪筆禪面展 등이다.

素奄 玄中和, 聽灘 金光秋, 海丁 朴泰俊 등의 元老級 書藝人들이 있지만 그 脈은 좋은 與件을 갖고 있으면서도 계속 잇지는 못하고 있다. 그것은 作品面에서는 누구 못지 않은 質的 向上을 보이고 있지만 精神面에서는 아직도 아마추어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 作家的 素養이 弱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與件이 書藝 活動의 沈滯를 가져오는 結果가 됐다고 본다.

專門的 作家群으로서 專門書藝그룹이 形成되어 이러한 弱點을 補完하는 것이 書藝의 活動에 있어 앞으로 더욱 發展할 수 있는 要素가 되지 않을까 한다.

---

註: 54) 濟州新聞, 濟州新聞社, 1979.5.21.

55) 濟州道誌(下), 「第3章 藝術」, 濟州道, 1982, p.465.

56) 國展 30年史, 修文書館, 1981.

## V. 結 論

1945년부터 50년까지 韓國 現代美術은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激動과 混亂 속에 이루어진 美術이었다. 해방과 더불어 左·右翼의 對立으로 政治的 방향에 寧日이 없었으며, 1949년 비로소 國展이 創設되어 全美術人에게 政治的 信念과 함께 國家的 保護와 育成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되어 開花하는 듯 했다.

이런 가운데 6.25 사변은 다시 우리 美術界를 원점으로 돌리고 말아 開花하는 듯 했던 기운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다. 한번 꺾인 開花의 기운은 오래 머물지 못하다가, 1957년을 前後하여 20代 젊은 美術家와 새로운 時代感覺에 적응한 中堅作家들이 保守的 美術家에 대항, 꾸준히 美術界 개척에 온 정성을 쏟았다. 面壇의 世代交替라는 對內的 여건에서 오는 과감한 前衛 推進과 國際展 참가라는 對外的 여건 속에서 美術界는 차츰 成熟을 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 보다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主体性 確立이라는 과제가 있긴하지만, 긴 안목에서 볼 때 韓國 現代美術의 기틀을 다지는 역사적 격동기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韓國 現代美術의 狀況은 濟州에서도 더욱 暗黑에서 탈피할 能力을 갖출 수는 없었다. 숫자적으로나 環境 與件이 더욱 열세인 本道 美術界의 成長은 더욱 긴 冬眠으로 하여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 몇몇이 日本 留學을 통한 수업을 받았지만 그들은 여러가지 여건으로 많은 活動을 못한 것도 그 이유가 되겠다. 다만, 避難時節에 中央面壇의 중진들과의 짧은 滞在期間에 活動하고, 호남面壇의 몇몇 중진들이 展示會를 가짐으로써 濟州美術의 生成過程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原動力이 되었다.

濟州面壇의 發展過程을 살펴보면, 70년대 이후를 가장 활발한 活動期라 할 수 있다. 經濟의 急成長으로, 觀光開發로 濟州는 새로운 面貌를 誇示하게 되었고, 天惠의 아름다운 自然環境이 觀光商品으로 사랑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作家들이 濟州의 風物을 素材로 取하려고 철을 가리지 않고 찾아들게 되었고, 이들의 濟州 往來는 濟州美術에 대단한 刺戟을 줬은 물론 濟州美術의 發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70년에 들어서면서 濟州의 美術界는 60年代에 뿌린 씨앗들이 하나 하나 열매를 맺으면서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72년 濟州大學에 美術教育科가 新設되면서 美術人口의 底邊擴大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75년에는 道展이 처음으로 개최되어 作家들이 作品 製作에 대한 意慾을 鼓吹하고 부수적으로 展示會의 붐을 몰아 왔다. 우리나라의 面壇의 한 樣相도 되겠지만 濟州面壇도 70년 이후 갑작스레 일기 시작한 그림 기호에 따라 과거 藝術的 成長은 모두 商賣해 버리고 결국 未來를 指向하지 못한 데서 混亂과 주저로 實驗的 彷徨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作家의 未來指向的인 고민이 그 어느 때 보다는 절실히 要求되는 때이다. 따라서 本論文의 結論으로서 眞正한 濟州美術이 發展하려면 몇 가지 도출된 問題點이 解決되어야 하는 先行課業이 뒤따라야 하겠다.

첫째, 文化藝術이 中央 偏重으로 인한 地方文化 活動의 沈滯로 地域文化 隔差를 들 수 있다. 70년대 高度의 經濟成長에서 그 나름대로 地域的인 發展을 꾀하여 왔지만 地域間의 發展의 不均衡으로 더욱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地方과 서울과의 發展의 隔差도 크지만 濟州의 發展의 격차는 더욱 深刻한 셈이다. 따라서 經濟의 基本的 環境 與件은 中央 中心的 膨脹과 肥大化로부터 地方分散으로 擴大시켜 國民所得의 平衡化가 先行됨으로써 美術需要 人口의 底邊擴大를 피할 수 있어야 地方美術의 土臺가 마련될 것이다. 따라서 中央과 地方間의 隔差를 極少化하는 것이 重大하다. 이것은 美術人들의 努力만으로 이룩할 수 없는 보다 높은 政治的 次元에서 解決되어야 할 問題라 할 것이다.

둘째, 公募展에 대한 改善策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作家들의 目的이 자신들의 地域 與件 속에서 새로운 創造的 郷土的 樣式의 發展에 있다고 본다면, 각종 地方公募展에 있어 中央公募展의 縮小版이거나 年例的 行事爲主에서 脫皮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地方的 特性을 獨自的으로 創出하는 姿勢가 重要하다. 이러한 先行條件이 充足되면 地方文化의 特性缺如로 模倣文化 擴散을 막는데 重要的 要素가 될 것이라 하겠다.

셋째, 展示空間을 마련함에 있다. 美術人口의 底邊擴大라는 次元에서도 美術인들이 自由로운 作品活動을 하는데 絶對 必要한 要素이다. 이와 같은 일은 美術人뿐만 아니라 높은 次元의 後援 및 配慮 속에서 解決되어질 問題라 본다.

넷째, 健全한 그룹 活動이 育成되어야 한다. 그룹活動이 地方樣式의 發展에 至大한 責任을 갖고 있다고 본다면, 單純한 親睦이 目的이거나 努力을 主導하기 위한 모임의 活動이 되어서는 안 되며 보다 새로운 藝術 理念과 造形世界를 創造하기 위한 共同的 作業이 先行되어야 하겠다.

다섯째, 作家의 未來指向的인 創造의 힘을 길러야 한다. 制約된 環境의 與件을 克服 하려는 피나는 努力이 絶실히 必要하며, 藝術的 創作 活動을 통하여 獨創的인 자기 人格 도야에 힘쓰는 배전의 努力이 要求된다.

## 附 錄 1

### 1. 濟州美術의 沿革

- 1946 朴魯史 個人展 (5.20 ~ 25) 濟州北國民學校
- 1947 李錫柱 個人展 (10.28 ~ 11.3) 濟州北國民學校
- 1948 朴泰俊 西洋畫 個人展 (4.1 ~ 4.3) 濟州北國民學校 (4.3 事件으로 중단)
- 1953 第 2 回 學生美術展 (11.20) 觀德亭
- 1954 全國學生 綜合藝術祭 (11.25 ~ 27) 五賢高等學校  
趙英豪 個人展 (9.10 ~ 15) 오아시스茶房
- 1955 濟州道美術協會 創立 (2.24) 美公報院  
大靜高等學校 美展 (2.26 ~ 27) 大靜高等學校 講堂  
趙英豪 現代美術과 構成 (I)(II) (3.22 ~ 23) 濟州新聞에 發表  
第 1 回 濟州道美術協會展 (5.20 ~ 24) 中央卓球場  
姜泰碩 個人展 (7.5 ~ 10) 南宮茶房  
金壽鎬 西洋畫展 (8.6 ~ 11) 南宮茶房  
具大一 PASTEL 畫展 (9.10 ~ 15) 南宮茶房  
晨星女高 作品展 (9.12) 晨星女高 講堂  
金南培 個人洋畫展 (10.1 ~ 5) Y.M.C.A 講堂  
表善中學校教育週間 藝術品展覽會 (10.6) 表善中學校 校庭  
濟州市制慶祝 美術展 (10.22 ~ 25) 觀德亭  
濟州市制慶祝 美術公募展 (10.23 ~ 30) 主催 ; 濟州道美術協會
- 1956 濟州女中·高 美展 (2.8 ~ 9) 觀德亭  
表善中 美展 (6.18) 表善中學校 校庭  
第 2 回 濟州道美協展 (6.25) 觀德亭  
學徒美術公募展 (7.1) 觀德亭  
濟州文化祭 (11.25 ~ 29) 濟州道 一圓

- 1957 高永萬, 金澤和 洋畫二人展 (8.14 ~ 20) 오아시스茶房  
 金昌海 水彩畫展 (6.20 ~ 27) 湖水茶房  
 第2回 濟州文化祭 (11.25 ~ 30) 濟州道 一圓
- 1958 第1回 耽羅藝術祭 (6.8 ~ 10) 西歸邑民館  
 金源 個人展 (8.30 ~ 31) 美公報院  
 第3回 濟州文化祭 (11.26 ~ 29) 文總支部(濟州道 一圓)
- 1959 第2回 耽羅藝術祭 (11.26 ~ 29) 西歸邑民館  
 金昌海 水彩畫展 (12.15 ~ 21) 銀河水茶房
- 1960 濟州道美協 任員改選 (8.9) 濟州放送局  
 全道白日場(教育週間) (10.7) 三姓祠  
 全道美術展示會 (11.10 ~ 16) 美文化院  
 第3回 耽羅藝術祭 (11.15 ~ 17) 西歸邑民館
- 1961 韓明燮 個人展 (5.17 ~ 30) 별茶房  
 全道學生 白日場 (10.7) 濟州農高 校庭  
 第4回 耽羅藝術祭 (11.28 ~ 30) 西歸浦  
 金元玟 洋畫展 (11.28 ~ 12.3) 뉴욕茶菓店
- 1962 第1回 濟州藝術祭 (5.17 ~ 18) 濟州道 一圓  
 5.16 紀念美協創立紀念展 (5.17 ~ 25) 美文化院  
 任直淳 洋畫展 (8.15 ~ 20) 뉴욕洋菓店  
 郭龍培 洋畫展 (10.5 ~ 10) //  
 釜美術創立展 (10.25 ~ 30) 觀德亭  
 秋堂 東洋畫展 (10.28 ~ 11.2) 뉴욕洋菓店  
 曹碩春 東洋畫個人展 (12.20 ~ 30) 무지개茶房
- 1963 西歸國民學校兒童美展 (2.6 ~ 18) 뉴욕茶房  
 小松 金正鉉 東洋畫小品展 (4.24 ~ 28) 湖水茶房  
 金澤和 個人展 (7.20 ~ 25) 뉴욕茶房  
 康榮浩 個人展 (8.12 ~ 16) 陽地茶房

- 1963 晨星美展(10.1 ~ 3) 晨星女高 講堂  
 第2回 濟州藝術祭(10.11 ~ 13) 濟州道 一圓  
 姜泰碩 스켓치展(10.27 ~ 11.2) 南宮茶房  
 第1回 美協公募展(11.1 ~ 15) 教育會館  
 康榮浩 高在萬·韓明喆 三人展(11.21 ~ 25) 南宮茶房  
  
 濟州道美協展(11.26 ~ 30) 湖水茶房  
 晨星美術展(12.6 ~ 11) 서울中央公報館  
 梁永珍 個人展
- 1964 名畫 鑑賞의 밤(4.27) 姜泰碩 「아프리에」  
 第2回 全道兒童美術實技大會(5.7) 濟州女中·高校庭  
 美協「포스터」公募展(5.18 ~ 21) 觀德亭(5.22 ~ 26) 西歸浦  
 康榮浩 個人展(8.15 ~ 25) 춘흥茶房  
 賢展(10.15 ~ 20) 五賢高 校庭  
 第3回 藝術祭(12.1 ~ 20) 濟州道 一圓  
 吾展(12.1 ~ 3) 靑塔茶房  
 晨星 水彩畫展(12.1 ~ 4) 회심茶房  
 晨星 디자인展(12.1 ~ 4) 草原茶房  
 姜泰碩 金澤和 美協二人展(12.5 ~ 10) 一番地茶房  
 美術實技大會入選 作品展(12.7) 觀德亭
- 1965 西歸中·書藝展(7.7 ~ 13) 西歸避暑地茶房, 白馬茶房  
 濟州를 위한 美術家招待 天然美感의 再發見  
 (崔淳雨 卞鍾夏 金成雨 李龜烈)(8.19) 晨星女高 講堂  
 兒童 寫生大會(8.24 ~ 26) 北郡教育廳 主催  
 梁寅玉 個人展(8.20 ~ 26) 要安茶房  
 梁昌普 東洋畫 個人展(9.7 ~ 17) 要安茶房  
 金昌海 水彩畫展(10.5 ~ 15) 要安茶房  
 姜泰碩 小品展(10.20 ~ 27) 길茶房  
 第1回 파스텔畫實技大會(10.30 ~ 31) 五賢高, 西歸國校  
 瀛洲研墨會書藝展(11.27 ~ 12.3) 要安茶房

- 1965 第4回 漢拏文化祭(11.27 ~ 12.3) 濟州市 一圓  
美術實技大會(11.28) 濟州北國民學校 校庭
- 1966 初·中·高 全道書藝實技大會(7.25) 西歸中學校  
金澤和 個人展(9.16 ~ 20) 이어도茶房  
朴喆教 水彩畫展(10.6 ~ 10) 要安茶房  
第2回 瀛洲研墨會書藝展(11.19 ~ 11.23) 要安茶房  
第5回 漢拏文化祭(11.19 ~ 23) 濟州市 一圓  
張喜玉 東洋畫 個人展(11.25 ~ 30) 백록茶房  
姜東植 個人展(12.20 ~ 30) 백록茶房
- 1967 青少年赤十字 國祭親善美術展(1.20 ~ 30) 赤十字濟州支社  
第1回 藝術세미나〈主催; 藝總濟州支部〉(4.17) 濟州觀光호텔 2層홀  
淑堂 裴貞禮 東洋畫展(5.1 ~ 5) 蘭茶芳  
南龍 金容九 書道展(5.2 ~ 6) 青塔茶房  
朴益俊 洪信杓 東洋畫 二人展(6.23 ~ 27) 돌채茶房  
金元玟 繪畫와 詩畫의 빈딩省展(8.1 ~ 7) 이어도茶房  
商業美展(濟商高)(10.16 ~ 19) 觀德亭  
第5回 晨星美展(10.25 ~ 30) 晨星女高 講堂  
造花와 版畫展〈中央女中·高〉(10.25 ~ 29) 1 徒洞事務所 1層展示室  
第6回 漢拏文化祭(11.3 ~ 9) 濟州市 一圓  
第3回 瀛洲研墨會 書藝展(11.3 ~ 9) 要安茶房  
美協展(11.4 ~ 9) 원茶房  
美術實技大會(11.5) 濟州北國民學校  
賢展(11.17 ~ 23) 五賢中·高 講堂  
第一中·高美展(11.25 ~ 27) 觀德亭
- 1968 朴忠檢 東洋畫展(1.11 ~ 15) 要安茶房  
吳芝山 東洋畫展(1.13 ~ 24) 원·백록茶房  
全道兒童美術 實技大會〈主催; 濟州女中·高〉(5.25)  
金順謙 書藝展(7.13 ~ 19) 要安茶房

- 1968 梁昌普 東洋畫 個人展 (9.5 ~ 20) 要安茶房  
 造花斗 版畫展〈中央女中·高〉(10.9 ~ 11) 거상당구장  
 第7回 漢拏文化祭(10.19 ~ 21) 濟州道 一圓  
 第4回 瀛洲研墨會書藝展(10.19 ~ 25) 要安茶房
- 1969 第6回 晨星美展(6.24 ~ 30) 晨星女高 講堂  
 賢展(10.3 ~ 5) Y.M.C.A  
 第8回 漢拏文化祭(10.8 ~ 10) 濟州市 一圓  
 素奄 玄中和 招待書藝展(11.16 ~ 10) 濟州市 청자다방  
 (11.12 ~ 16) 西歸 草原茶房  
 美協展(11.8 ~ 10) 원茶房  
 康榮浩 油畫小品展(11.23 ~ 30) 원茶房  
 第5回 瀛洲研墨會書藝展(11.19 ~ 23) 心地茶房  
 第8回 文化賞 玄中和 受賞(12.24)
- 1970 「畫室3人」小品展(4.15 ~ 25) 소라茶房  
 第1回 母子寫生大會(5.6) 제주시 관광호텔 광장·서귀포 관광호텔 광장  
 任直淳 晉良旭 二人小品展(8.10 ~ 12) 산호茶房  
 金澤和 個人展(8.7 ~ 25) 소라茶房  
 梁昌普 韓國畫展(9.1 ~ 20) 소라茶房  
 梁昌普, 金澤和, 金元玟 三人스케치展(10.2 ~ 6)  
 第9回 漢拏文化祭(10.3 ~ 5) 濟州道 一圓  
 第6回 瀛洲研墨會書藝展(11.6 ~ 9) 청자茶房  
 南道 東洋畫 綜合展 (文章浩 朴益俊 李鍾元 李昌柱 朴景洙) (11.16 ~ 23)  
 (朴항환 吳禹善 李英雨 李達才) 산호茶房  
 梁秉允(황우덕) 人物展(11.25 ~ 30) 靜茶房  
 崔仁煥 小品展(11.28 ~ 12.6) 中央茶房
- 1971 金英子 油畫展(1.19 ~ 24) 청자茶房  
 曹碩春 東洋畫展(2.10 ~ 16) 소라茶房  
 第2回 母子寫生大會(5.8) 제주 서부두·서귀포 선일포도당 공장 뜰  
 姜容澤 東洋畫展(6.16 ~ 30) 소라茶房

- 1971 日本學生 그림展 (7.8 ~ 30) 소라茶房  
 畫室7人 同人展 (姜容澤 梁昌普 姜光 金澤和  
 金元玟 曹碩春 康榮浩) (10.20 ~ 30) 소라茶房  
 第7回 瀛洲研墨會書藝展 (11.3 ~ 11.8) 청자茶房  
 第10回 漢拏文化祭 實技大會入賞作展 (11.13 ~ 15) 湖岩美術研究所  
 日曜畫家展 (12.23 ~ 28) 靜茶房
- 1972 高秉允 油畫個人展 (1.10 ~ 15) 소라茶房  
 許薰 東洋畫展 (1.26 ~ 30) 西歸 보물섬茶房  
 李六錄 油畫展 (1.30 ~ 2.7) 靜茶房  
 第3回 母子寫生大會 (5.13) 濟州市 濟州北校·서귀포 西歸校 校庭  
 金柄化 個人展 (5.10 ~ 20) 소라茶房  
 姜東文 洋畫小品展 (6.8 ~ 14) 靜茶房  
 梁昌普 東洋畫 個人展 (9.21 ~ 27) 소라茶房  
 雲根 文基善 水墨展 (10.1 ~ 8) 靜茶房  
 第8回 瀛洲研墨會書藝展 (11.5 ~ 9) 靜茶房  
 美協展 (11.14 ~ 19) 소라茶房  
 第3回 第一美展 (11.15 ~ 17)  
 第11回 漢拏文化祭 (11.15 ~ 19) 濟州銀行 3層홀  
 第11回 漢拏文化祭 美術實技大會 (11.16) 濟州北校  
 二人 東洋畫 習作展 (김인숙, 김춘생) (12.1 ~ 5)  
 金永太 油畫 個人展 (12.12 ~ 18) 청자茶房
- 1973 濟大美展 (6.5 ~ 10) 圖書館  
 朴淑烈 個人展 (1.20 ~ 26) 소라茶房  
 朴貞和 小品展 (3.10 ~ 15) 靜茶房  
 姜光 習作展 (4.20 ~ 25) 소라茶房  
 賞奄 鄭宰賢書藝作品展 (7.2 ~ 6) 靜茶房  
 濟州女商 第1回 美展 (7.27 ~ 31) 校內講堂  
 第4回 母子寫生大會 (5.9 ~ ) 제주 농고교정· 제주방승국 서귀중계소  
 孫榮珠 書藝展 (8.2 ~ 7) 靜茶房  
 趙太侑 油畫展 (9.1 ~ 9) 소라茶房

- 1973 第9回 瀛洲研墨會書藝展(11.3 ~ 8) 청자茶房  
 第12回 漢拏文化祭(11.11 ~ 13) 濟州市 一圓  
 美術同好人展(11.11 ~ 25) 靜茶房
- 1974 張喜玉 東洋畫展(4.14 ~ 26) 西歸 호반茶房  
 第5回 母子寫生大會(5.18) 제주농고운동장·서귀포KBS중계소  
 第2回 濟大美展(6.3 ~ 9) 舊 農協道支部廳舍  
 姜 光 高永羽 二人展(7.8 ~ 20) 소라茶房  
 雲耕 南廷九 篆刻展(9.10 ~ 15) 회심茶菓室  
 第1回 素墨會淨書展(臨書展) (3.25 ~ 31) 제주시 靜茶房  
 (4. 3 ~ 7) 서귀포 蓮茶房  
 湖岩 梁昌普 韓國畫展(10.10 ~ 20) 소라茶房  
 賢展(10.23 ~ 27) 文化禮式場  
 第13回 漢拏文化祭(10.26 ~ 28) 濟州市 一圓  
 美協展(10.26 ~ 31) 소라茶房  
 姜 光 小品展(11.22 ~ 26) 소라茶房
- 1975 「鹿友會」美展(2.19 ~ 3.10) 소라茶房  
 第2回 素墨會淨書展(臨書展) (5.1 ~ 8) 靜茶室  
 第6回 母子寫生大會(5.17) 제주시 농고운동장·서귀포 서귀국교  
 第一高 美展(5.16 ~ 18) 락키禮式場  
 韓尙洙 刺繡展(5.17 ~ 23) 濟州觀光호텔로비  
 第3回 濟大美展(6.1 ~ 10) 晨星女高 講堂  
 姜泰碩 個人展(6.14 ~ 20) 靜茶房  
 金智姬 美術作品展(6.5 ~ 10) 소라茶室  
 康榮浩 曹碩春 繪畫二人展(6.24 ~ 7.2) 靜茶室  
 趙太侑 油畫個人展(9.6 ~ 16) 翰林 誠心茶房  
 第14回 漢拏文化祭(10.8 ~ 10) 濟州道 一圓  
 賢展(11.19 ~ 23) 濟北校 圖書館  
 第1回 濟州道 美展(11.20 ~ 30) 學生會館  
 第11回 瀛洲研墨會書藝展(11.10 ~ 11.16) 청자茶房

- 1976 高永萬 油畫展 (1.22 ~ 28) 소라茶房  
 高英羽 크레파스畫展 (2.7 ~ 12) 소라茶房  
 康榮浩 作品展 (2.22 ~ 29) 소라茶房  
 第3回 素墨會書展 (3.7 ~ 12) 제주시 靜茶房  
 (3.14 ~ 18) 서귀포 元茶房  
 李柄三 作品展 (4.3 ~ 9) 제주시 KAL 호텔  
 鹿友展 (4.7 ~ 11) 대호茶房  
 高榮勳 作品展 (4.15 ~ 25) 대호茶房  
 吳赫泰 書藝展 (4.15 ~ 29) 서귀 호반茶房  
 故 姜泰碩 畫伯遺作展 (5.13 ~ 18) 대호茶房  
 第7回 母子寫生大會 (5.22 ~ ) 제주시 제북교·서귀 서귀국교 운동장  
 吳文福 古書藝展 (5.20 ~ 25) 靜茶房  
 第4回 濟大美展 (6.14 ~ 20) 學生會館  
 賢展 (9.24 ~ 28) 濟州北國民學校  
 第15回 漢拏文化祭 (10.8 ~ 10) 濟州道 一圓  
 美協展 (10.8 ~ 13) 學生會館  
 第12回 瀛洲研墨會書藝展 (10.12 ~ 18) 청자茶房  
 東洋畫 招待作家展 (11.1 ~ 6) 산호茶房  
 第2回 濟州道美展 (11.20 ~ 30) 學生會館  
 韓明燮 油畫展 (11.26 ~ 12.10) 대호茶房  
 濟大卒業展 (12.10 ~ 17) 學生會館  
 藝墨會展 (12.20 ~ 26) 청자茶房
- 1977 第4回 素墨會展 (4.12 ~ 17) 濟州 湖水茶房  
 (4.19 ~ 21) 西歸 松美茶房  
 現代東洋畫展 (5.11 ~ 20) 산호茶房  
 第一美展 (5.16 ~ 19) 락희禮式場  
 第8回 母子寫生大會 (5.21)  
 美協 16人展 (6.2 ~ 9) 濟南홀  
 「觀點」同人展 (6.20 ~ 7.5) 대호茶房  
 第2回 「觀點」同人展 (7.6 ~ 7.15) 대호茶房

- 1977 第3回「觀點」同人展(7.16 ~ 7.30) 대호茶房  
 第1回 濟大教授展(7.18 ~ 28) 오성茶房  
 第5回 濟大美展(10.6 ~ 12) 學生會館  
 第16回 漢拏文化祭(10.19 ~ 21) 濟州道 一圓  
 美協展(10.19 ~ 25) 學生會館  
 第3回 濟州道美展(11.20 ~ 30) 學生會館  
 賢展(10.28 ~ 31) 五賢中·高 講堂  
 南松 洪完杓 書藝展(12.5 ~ 15) 湖水茶室  
 第14回 瀛洲研墨會書藝展(10.5 ~ 10) 靜茶室  
 濟大卒業展(12.6 ~ 10) 學生會館  
 金英子 油畫展(12.13 ~ 20) 中央茶房  
 孫翎日 書道展(12.16 ~ 22) 靜茶房  
 藝墨會展(12.21 ~ 27) 청자茶房
- 1978 畫脈展(1.15 ~ 20) 濟州市 湖水茶房  
 (1.22 ~ 24) 西歸浦 元茶房  
 第5回 素墨會 習作展〈自運展〉(2.5 ~ 8) 산호茶室(제주)  
 (2.9 ~ 11) 松美茶室(서귀)  
 朴性垠 作品展(2.5 ~ 28) 濟州KAL호텔 5層 장미홀  
 金淳官 作品展(2.24 ~ 28) 산호茶室  
 第1回 濟美同門展(3.5 ~ 11) 산호茶室  
 湖岩 梁昌普 作品展(4.24 ~ 30) 산호茶室  
 美術作品展(5.8 ~ 13) 산호茶室  
 第6回 素墨會 臨書展(5.6 ~ 11) 湖水茶室  
 第15回 瀛洲研墨會書藝展(5.1 ~ 7) 湖水茶室  
 第9回 母子寫生大會(5.20)  
 濟大美展(6.12 ~ 18) 學生會館  
 姜吉源 徐良順 油畫展(7.3 ~ 9) 漢拏美術學院展示場  
 濟州道美術協會展(7.10 ~ 16) 산호展示室  
 濟州日曜畫家會創立展(7.17 ~ 22) 漢拏美術學院展示場  
 第17回 漢拏文化祭(10.5 ~ 7) 濟州道 一圓  
 美協展(10.5 ~ 9) 學生會館

- 1978 徐京保 禪筆畫展 (10.9 ~ 15) KAL 호텔 커피숍  
 金澤和 風景畫展 (10.13 ~ 19) 산호茶室  
 第4回 濟州道美展 (11.20 ~ 30) 學生會館  
 康榮浩 作品展 (11.27 ~ 12.3) 산호茶室  
 邊時志 作品展 (12.15 ~ 23) 산호展示場  
 濟州藝墨會展 (12.21 ~ 26) 청자茶室  
 濟美同門展 (12.22 ~ 27) 산호茶室
- 1979 第4回 觀點美術同人展 (2.1 ~ 7) 산호茶室  
 東洋畫 25人展 (2.5 ~ 12) KAL 호텔 커피숍  
 姜光 繪畫展 (2.15 ~ 24) 산호茶室  
 金柄化 作品展 (3.14 ~ 18) 산호茶室  
 第2回 濟州素墨會自運展 (3.19 ~ 24) 서귀포 호반茶室  
 (3.14 ~ 18) 제주시 호수茶室  
 第2回 濟大教授展 (5.4 ~ 5.10) 산호茶室  
 第5回 「觀點」美術同人展 (5.10 ~ 15) 산호茶室  
 金泰伸 畫展 (5.18 ~ 20) KAL 호텔 커피숍  
 第10回 母子寫生大會 (5.19) 제주시 ; 제북교, 서귀읍 ; 서귀교, 한림읍 ; 한림교  
 성산읍 ; 동남교, 대정읍 ; 대정교  
 돌맹이會同人美展 (5.24 ~ 29)湖水茶房  
 第7回 濟大美展 (6.4 ~ 10) 學生會館  
 美協展 (6.25 ~ 7.1) 산호展示場  
 第8回 濟州素墨會臨書展 (10.17 ~ 21)湖水茶室  
 美協展 (10.18 ~ 22) KAL 호텔 展示室  
 第18回 漢拏文化祭 (10.18 ~ 20) 濟州道 一圓  
 晨星美展 (10.23 ~ 28) 學生會館  
 第16回 瀛洲研墨會書藝展 (11.5 ~ 10) 白鳥茶室  
 小峯 朴熙圭 東洋畫展 (11.9 ~ 11.16) 제주KAL 호텔 커피숍  
 曹碩春 東洋畫 個人展 (11.15 ~ 22) 대호茶室  
 濟州道美展 (11.20 ~ 30) 學生會館  
 第6回 「觀點」同人展 (11.26 ~ 12.2) 산호茶室  
 姜吉源 油畫展 (11.30 ~ 12.6) 漢拏美術學院展示場

1979 金元玟 油畫 個人展 (12.3 ~ 8) 庭園茶室  
第4回「濟大卒業作品展」(12.8 ~ 12) 學生會館  
南洲中·高 美展 (12.8 ~ 11) 濟州銀行 西歸浦支店 3層  
徐正默 東洋畫 招待展 (12.10 ~ 20) 濟州KAL 호텔 展示場  
五賢高 卒業展 (12.14 ~ 17) 五賢高 講堂  
第2回 濟州日曜畫家會員展 (12.17 ~ 22) 庭園茶室  
宇城 邊時志 作品繪皿展 (12.17 ~ 22) 산호茶室  
第18回 文化賞 梁昌普 受賞 (12.15)

## 附 錄 2

### 2. 濟州道展 現況 〈1回：1975～5回：1979〉

第1回(1975年)

審査委員 東洋畫；許 楸 徐世玉  
           西洋畫；李馬銅 梁寅玉  
           書 藝；鄭桓燮  
 招待作家 東洋畫；梁昌普  
           西洋畫；金澤和 姜 光 千炳權  
           書 藝；玄中和 洪貞杓 文基善

〈一般部〉

最高賞；金妍實(西洋畫)

金 賞；金哲敏(東洋畫) 高在萬(西洋畫) 邊榮卓(書藝)

分野別	最高賞	金 賞	特 選	入 選
東洋畫		1	5	25
西洋畫	1	1	5	27
書 藝		1	5	13
分野別	招待作品	審査委員作品	計	備 考
東洋畫	1	2	34	
西洋畫	3	2	39	
書 藝	3	1	23	

〈學生部〉

最高賞；강훈택(繪畫)

金 賞；김평식(繪畫) 김경용(繪畫)

分野別	最高賞	金 賞	特 選	入 選	計
繪 畫	1	2	5	32	40
書 藝			2	14	16

第2回(1976年)

審査委員 東洋畫; 徐世玉

西洋畫; 南寬

書藝; 金忠顯

招待作家 東洋畫; 梁昌普

西洋畫; 梁寅玉 金澤和 姜光

書藝; 玄中和

〈一般部〉

最高賞; 金柄化(西洋畫)

金賞; 康東彥(東洋畫) 金妍實(西洋畫) 玄炳璨(書藝)

分野別	最高賞	金賞	特選	入選
東洋畫		1	5	24
西洋畫	1	1	5	20
書藝		1	4	15
分野別	招待作品	審査委員作品	計	備考
東洋畫	1	1	32	
西洋畫	3	1	31	
書藝	1	1	22	

〈學生部〉

最高賞; 權昭瑛(繪畫)

金賞; 김진욱(繪畫) 강영용(書藝)

分野別	最高賞	金賞	特選	入選	計
繪畫	1	1	5	36	43
書藝		1	2	11	14

第3回(1977年)

審査委員 東洋畫;徐世玉

西洋畫;朴恒燮

書藝;玄中和

招待作家 東洋畫;梁昌普 禹載國

西洋畫;邊時志 姜吉源 姜光 金澤和 梁寅玉 康榮浩

書藝;朴泰俊

〈一般部〉

最高賞;高永錫(西洋畫)

金賞;姜旼宣(東洋畫) 金妍實(西洋畫) 朴東圭(書藝)

分野別	最高賞	金賞	特選	入選
東洋畫		1	5	23
西洋畫	1	1	6	19
書藝		1	3	13
分野別	招待作品	審査委員作品	計	備考
東洋畫	2	1	32	
西洋畫	6	1	34	
書藝	1	1	19	

〈學生部〉

最高賞;高定愛(繪畫)

金賞;강영자(繪畫) 金石雲(書藝)

分野別	最高賞	繪畫	特選	入選	計
繪畫	1	1	6	32	40
書藝		1	4	9	14

第4回(1978年)

審査委員 東洋畫; 李惟台

西洋畫; 金源

書藝; 宋成鏞

招待作家 東洋畫; 梁昌普 禹載國

西洋畫; 邊時志 梁寅玉 姜吉源 金澤和 姜光 康榮浩

書藝; 玄中和 朴泰俊

<一般部>

最高賞; 鄭玼燮(西洋畫)

金賞; 金姝利(東洋畫) 李成滿(西洋畫) 朴東圭(書藝) 邊榮卓(書藝)

分野別	最高賞	金賞	特選	入選
東洋畫		1	6	17
西洋畫	1	1	5	20
書藝		2	2	8
分野別	招待作品	審査委員作品	計	備考
東洋畫	2	1	27	
西洋畫	6	1	34	
書藝	2	1	15	

<學生部>

最高賞;

金賞; 문형섭(繪畫) 고인용(繪畫) 邊祺容(書藝) 김정순(書藝)

分野別	最高賞	金賞	特賞	入選	計
繪畫		2	8	30	40
書藝		2	2	9	13

第5回(1979年)

審査委員 東洋畫；朴世元

西洋畫；朴得鎔

書藝；趙守鎬

招待作家 東洋畫；梁昌普 夫賢一

西洋畫；邊時志 姜吉源 金澤和 姜光 康榮浩

書藝；玄中和 朴泰俊

〈一般部〉

最高賞；梁碩姬(西洋畫)

金賞；玄美姬(聽難賞・東洋畫) 金庸柱(西洋畫) 文鳳宣(書藝)

分野別	最高賞	金賞	特選	入選
東洋畫		1	4	17
西洋畫	1	1	3	18
書藝		1	4	10
分野別	招待作品	審査委員作品	計	備考
東洋畫	2	1	25	
西洋畫	5	1	29	
書藝	2	1	18	

〈學生部〉

最高賞；邊祺容(書藝)

金賞；홍성석(繪畫) 姜日美(書藝)

分野別	最高賞	金賞	特選	入選	計
繪畫		1	9	24	34
書藝	1	1	2	9	13

## 參 考 文 獻

- 季刊美術, 中央日報社, 1980, №.13
- 高 銀, 「李仲燮 그藝術과 生涯」, 民音社, 1973.
- 國展 30 年史, 修文書館, 1981.
- 金錫翼, 「耽羅紀年」, 濟州道教育委員會, (耽羅文獻集), 1976.
- 金泳鎬, 「小癡實錄」, 瑞文堂, 1976.
- 金宗業, 「朝鮮朝 濟州島에 대한 論考」, 濟州大學論文集(第9輯), 濟州大學, 1977
- 金泰能, 「耽羅의 呼稱에 대한 私考」, 濟州道 13 호, 濟州道, 1964.
- 金次鳳, 「濟州年鑑」, 濟州年鑑社, 1977.
- 淡水契, 「增補耽羅誌」, 프린트관, 1954.
- 文總濟州道支部, 「濟州文化」, 友生堂出版社, 1957.
- 沈汝澤, 「濟州島地名 研究」, 濟州大學論文集(제 4 집), 濟州大學, 1972
- 安輝濬, 「韓國繪畫史」, 一志社, 1980
- 吳光洙, 「韓國現代美術史」, 民衆書館, 1979.
- 李慶成, 「韓國近代繪畫」, 一志社, 1980.
- 李慶成, 「現代韓國美術의 狀況」, 一志社, 1976.
- 李仲燮 書翰集, 韓國文學社, 1980.
- 濟州教育史, 濟州道教育委員會, 1979.
- 濟州道誌(上), 濟州道, 1982.
- 濟州道誌(下), 濟州道, 1982.
- 濟州新聞, 濟州新聞社, 1953 ~ 1979.
- 秦弘燮 崔淳雨, 「韓國美術史年表」, 一志社, 1981.
- 崔完秀, 「金秋史研艸」, 知識產業社, 1976.
- 崔完秀, 「秋史精華」, 知識產業社, 1983.
- 韓國의 美(17)「秋史 金正喜」, 中央日報社, 1985.
- 韓國美術文化史論叢, 通文館 1974.
- 韓國美術全集(11)「近代美術」, 同和出版社, 1975.
- 韓國美術全集(12)「繪畫」, 同和出版社, 1975.

韓國現代美術代表作展 100 人選集 5,6 卷，金星出版社，1976

韓國現代美術全集 16 卷，正韓出版社，1983.

賢岳 2 號，五賢高等學校 學徒護國團，1954.

泉精一，「濟州島」，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1966.